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2호 【루계 제23104호】 주체99(2010)년 6월 1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널리 보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의 전문을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5월 7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이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의 상세한 요지를 메히꼬 주체사상연구소에서 뷸레찐 제56호에 게재하였다.

뷸레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였다.

뷸레찐은 머리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 발표하신 이 로작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가장 초미의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력사적로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을 총화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기본열쇠가 마련되고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밝혀졌으며 사상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리론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의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량강도 혜산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먼저 혜산시의 패궁정마루에 세워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혜산강철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어려운 속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혜산신발공장과 김정숙사범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정숙사범대학의 졸업생들이 교육부문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대학이 가장 우월한 조선의 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대학교직원, 학생들이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라오스통신, 핀란드 코민포름통보사 인터네트잡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글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메히꼬, 타이, 기네에서 토론회, 강연회가 5월 17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기네 꼬나크리주체사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는 토론회에서 6월 19일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을 지도사상이 투철한 당으로,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 위력한 당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고 있다.

최근 조선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의 비결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쏭치트 풀랍은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일찌기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이 시대와 혁명의 요구,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고 그를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온 사회에 구현하시였다.

그이께서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심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자주적대가 굳건한 당으로, 그 어떤 로선상착오도 없이 조선인민을 강성대국건설투쟁에로 힘있게 령도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기네 꼬나크리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까마노 비또르는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계신다. 이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특출한 정치실력과 풍모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령도자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시고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인민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분이시다.

그이께서는 선행로동계급의 혁명학설을 연구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종합체계화하시였다. 그이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발전풍부화됨으로써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해주는 힘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특출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분이시다.

세계의 그 어느 정치가도 이루지 못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이딸리아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에서 잡지 《라 보체》 5월호를 특간호로 발행하였다.

잡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위대한 수령들을 모신 조선인민의 행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자기 나라를 《김일성조선》으로, 자기 민족을 《김일성민족》으로 자랑스럽게 부르고있다. 그것은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민족재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기때문이다.

조선에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의 또 한분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그를 철저히 구현해나갈 의지를 밝히시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계신다.

조선인민은 두분의 위대한 수령을 끝없이 흠모하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군민련환대회 신의주시에서 진행

【신의주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군민련환대회가 5월 31일 신의주시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안북도의 제2단계 토지정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불도젤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토지정리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하려는 드높은 열의에 넘친 수많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대회장인 신의주광장으로 모여들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토지정리를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모가 나게 해제끼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동지와 김평해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심상대 조선인민군 상장, 김창식농업상,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안북도내 당, 정권, 행정경제기관 일군들, 토지정리돌격대원들, 신의주시내 근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선물 전달사를 김영춘동지가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들을 찾아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불도젤들을 선물로 보내주시며 평안북도의 제2단계 토지정리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은정깊은 대책을 세워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에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념원을 실현하고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려는 장군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속에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세기적인 전변이 일어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전변되고 평북땅에는 《한드레벌의 지평선》과 같은 희한한 선군풍경이 펼쳐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선군시대 토지정리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며 혁명전사모두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불도젤을 받은 군민은 단합된 힘으로 평북땅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토지정리구상을 현실로 활짝 꽃피워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장령 리재연, 평안북도토지정리돌격대 책임자 류진수, 운전수 박철남, 룡천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백성남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토지정리사업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혁명이고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토지정리전투장들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3면으로 계속

참된 애국의 구호

◇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이 구호는 지금 온 나라 근로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서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작업반장 김성복동무는 《누구나 〈희천속도〉창조자들처럼 살며 내달리고있다. 속도는 습보로, 질은 만년수준으로,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건설본때, 창조본때가 아니겠는가.》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오늘의 대고조시대 창조정신은 참으로 비상하다. 기성관념으로는 10년이상 걸려야 할 일을 수년동안에, 몇년을 예상하던 일감은 단 몇달동안에 해제끼면서도 10년, 50년도 아닌 천년, 만년을 내다보며 최상의 질을 보장해나가는것과 같은 창조기풍은 전무후무한것이다. 우리 인민은 조국수호전에서뿐아니라 창조와 건설의 대전에서도 세계를 경탄시키는 영웅적인민이다.

◇ 천년책임, 만년보증, 이것은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지닌 혁명적당과 인민만이 높이 들수 있는 창조의 기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조선을 무궁토록 번영하는 강성대국으로 빛내이려는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투쟁목표이며 천만군민의 결사의 의지이다. 하기에 시련의 시기에도 토지정리와 같은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들이 련이어 진행되고 오늘은 민족의 백년, 천년번영을 담보하는 전인민적인 최첨단돌파전이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는것이다.

높은 리상과 숭고한 미래관을 지닌 당과 인민이 있어 우리 조국은 영원히 불패의 위력과 강성번영의 기상을 떨칠것이며 우리의 후대들은 위대한 번영의 만년토대를 다진 오늘의 강성대국건설시대를 길이길이 칭송하게 될것이다.

◇ 온 나라에 미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꽉 차넘쳐야 한다.

남흥로동계급은 무연탄가스화대상건설에서 최대의 속도와 함께 최상의 질보장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최첨단수준의 생산기지를 일떠세웠다. 이들처럼 하나를 건설하여도 조국번영과 인민생활에 실지 이바지하는것,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창조물을 내놓아야 한다.

천년책임, 만년보증은 단순히 건설에서의 질보장구호만이 아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무슨 일을 하나 설계하고 내밀어도 멀리 앞을 내다보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가장 발전된 수준에서 해나가야 한다.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고 주체비날론, 주체비료를 생산하여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희한한 사변들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 두 시대를 뒤흔든 경희극 《산울림》처럼 인민들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창조물들이 도처에서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상반년계획을 빛나게 수행 청진강재공장에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머리우에 단호한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철강재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뜻깊은 올해의 하루하루를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는 이들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철강재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받들고 말그대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계획수행기간 공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며 설비들을 능률적으로 개조하는데 큰 힘을 넣었으며 철강재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보장단위에서 설비부분품과 부속품 그리고 연료와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게 하였다.

공장에서는 새로운 용해방법을 도입하고 앞선 기술로 압연기들의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철강재생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여나갔다.

특히 일군들이 높은 실력과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실천적모범으로 생산자대중을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공장의 철강재생산자들은 일터마다에서 련일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유도로들의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그 가동률을 높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었다. 그들은 가열로들의 보수정비를 깐지게 하고 로조작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여 질좋은 소재를 압연공정에 보내주었다.

압연 1, 2작업반의 압연공들은 맡은 설비에 정통하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힘으로 풀어나갔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일념밑에 계속혁신의 한길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철길보수에 력량을 집중 고원철도분국에서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선 고원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원쑤격멸의 투지를 안고 철길보수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분국에서는 최근 한달 남짓한 기간에 백수십km의 철길구간에 대한 로반다짐과 수천㎥의 자갈보충, 수천정의 침목교체를 진행하였으며 철길주변에 수십만그루의 왜싸리나무를 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은 철길강도를 높이는것입니다.》

당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이곳 책임일군들은 분국안의 역, 대, 소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철길보수전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분국에서는 철길보수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무엇보다도 철길소대원들이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일할수 있도록 조건보장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이곳 일군들은 분국안의 철길을 모두 령점철길로 만들 높은 목표를 내걸고 현장료해를 구체적으로 한데 기초하여 구간별로 과제를 명백히 주었으며 그 수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알심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분국의 모든 일군들이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철길보수전투현장에 내려가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며 철길소대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고원철길대 천을, 둔전철길소대의 철길원들이 애국의 마음안고 맡은 철길보수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곳 철길원들은 경사가 급한 담당구간의 철길상태를 손금보듯 꿰들고 철길강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이곳에 달려나온 지원자들도 철길원들과 힘을 합쳐 자갈보충과 로반다짐작업, 나무심기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다그쳐나날이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분국아래 구조물대의 로동자들도 담당한 차굴보수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빠른 기간에 끝낼 열의에 넘쳐 혼합물생산을 앞세우면서 차굴천정보강공사에서 놀라운 속도를 창조하고있다.

기공구와 침목, 자갈생산을 맡은 단위의 로동자들도 일터마다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기공소대를 비롯한 고원철길대의 로동자들이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설비들의 가동률을 부단히 높여 레루못, 나사를 비롯한 철길고착품들과 침목생산량을 나날이 늘여나가고있다. 성내채석광산의 로동자들도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 해제낌으로써 철길보수에 필요한 자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분국안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철길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공로있는 부대의 칭호와 함께 빛내여주신 삶

황해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지배인이였던 최기춘동무가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큰물과 가물에도 끄떡없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는 관개체계가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조국의 지도를 펼치고 곳곳에 건설된 대인공호수들과 전국도처로 그물같이 뻗어나간 관개수로망들을 볼 때마다 우리 농민들의 물에 대한 숙원을 풀어주시고 조국강산을 풍치수려한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가 되새겨져 가슴이 후더워오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문제를 풀기 위하여 관개공사를 군중적운동으로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령도하시는 나날에 나라의 관개건설을 맡아할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수많이 자라나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서 삶을 빛내였으니 황해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지배인이였던 최기춘동무도 그러한 일군들중의 한 사람이였다.

⁘ ⁘

위대한 농촌테제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인 주체63(1974)년 10월, 우리 나라에 또 하나의 대인공호수—연탄저수지가 건설되여 준공을 선포하였다. 황주긴등벌을 비롯하여 3개의 시, 군안의 수십개 리를 포괄하는 넓은 면적에 생명수를 보충공급하며 공업용수를 해결하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지는 연탄호는 어지돈지구의 관개체계를 더욱 확대공고화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언제를 쌓을 자리도 잡아주시였으며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사 전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시여 완공된 저수지였다.

연탄호건설완공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공사를 맡아한 어지돈관개건설종합기업소 (당시) 지배인인 최기춘동무와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어지돈관개건설종합기업소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해지구 관개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정전직후에 친히 무어주신 기업소였다. 어지돈관개건설을 시작한 당시만 해도 기업소는 큰 공사를 해본 경험도 없었고 기술력량도 부족하였다. 그때 공사장을 자주 찾으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업소일군들에게 어지돈관개공사는 훌륭한 관개대학이라고 하시면서 이 공사를 끝낼 때까지 여기서 일하면 대학을 졸업한것과 같다고, 이 훌륭한 관개대학을 통하여 더 많은 기술자들을 양성해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경제건설의 실천속에서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많이 키워내여 나라의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결심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지돈관개공사도 하나의 훌륭한 대학으로 여기시고 공사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이 관개건설의 경험도 쌓고 담력도 키우며 기술도 익히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최기춘동무도 그 손길에서 자라난 일군이였다. 관개건설에 참가한 그의 경력으로 말하면 해방직후 함경북도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주남관개공사때에 물길굴측량시공을 맡아하고 평남관개건설때에는 설계원으로 일한것이 전부였다. 경험도 적고 능력도 부족한 그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애국열의를 귀중히 여기시여 어지돈관개건설을 맡아할 기업소의 책임일군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현장을 찾으실 때면 경제조직사업과 기술관리사업을 짜고들어 공사를 힘있게 내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렇게 키워내신 일군들과 기술자들, 건설자들에 의하여 서흥호에 이어 신곡저수지가 건설되였으며 연탄저수지와 같은 대규모의 관개공사도 훌륭히 해내게 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힘있는 부대로 자라난 기업소에 이제 더 큰 공사대상을 맡겨주실 생각이였다.

최기춘동무일행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정중히 올리는 인사를 받으시자 **《아, 동무들이 왔구만. 정말 동무들이 수고했소.》**라고 하시며 더없이 반가와하시였다. 자나깨나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을 또다시 몸가까이에서 뵙게 된 최기춘동무는 감격과 흥분으로 가슴들먹이며 수령님께 공사에 착공하여 2년반에 건설을 끝낸데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그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어지돈관개건설종합기업소는 황해남북도의 관개건설을 많이 하는것만큼 그 이름을 황해관개건설사업소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친히 기업소의 이름을 바꾸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감회깊은 어조로 사업소가 정전직후에 조직되여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나라의 수리화에서 매우 큰 공로를 세웠다고 거듭 치하해주시면서 사업소가 그동안 압록강관개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여러개의 관개건설사업소를 세간내다보니 지금 정전직후부터 일해온 로동자들이 수백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의 사업소가 여러개의 사업소를 낳은것은 좋은 일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도 부대가 하나 조직되면 그 부대가 자라서 여러 부대로 갈라지군 하였다고, 나라의 발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치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최기춘동무는 격정에 목이 꽉 메이였다.

사실 우리 나라의 관개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의 물에 대한 숙원을 깊이 헤아리시여 수리화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구상을 실현할 기업소들을 튼튼히 꾸려주시였으며 친히 하나하나의 공사를 발기하시고 공사 전과정을 보살피고 이끌어주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의 자랑찬 력사였다.

최기춘동무에게는 연탄호건설이 한창이던 1973년 봄에 있었던 일이 가슴뜨겁게 돌이켜졌다. 그때 기업소에서는 그해안으로 저수지의 언제성토작업을 끝내기 위하여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었는데 운반수단이 부족하여 애를 먹고있었다. 최기춘동무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해당 단위에 여러번 찾아갔지만 끝내 해결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업소일군들을 부르시여 공사진척정형을 료해하시다가 애로되는 점을 물어주시였다. 그때 최기춘동무는 대형자동차들만 더 있으면 그해안으로 성토작업을 끝낼수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그 자리에 있던 일군들은 나라사정이 어려운 때에 자동차타발을 한다고 그를 나무라게 여겼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애타하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즉석에서 요구하는 대수이상의 대형자동차를 해결해주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흙을 퍼담는 기계들과 불도젤, 지어 지휘용자동차까지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기업소로동자들이 관개건설장으로 부단히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형편을 헤아리시여 실정에 맞는 주택을 건설해주며 그들의 생활단위에 종합상점을 내올데 대한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최기춘동무가 연탄호건설의 나날에 있은 잊지 못할 일들이 되새겨져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이번에 더 큰 공사를 맡기자고 한다고 하시며 재령강저수지공사를 1977년까지 끝내야겠다고 하시였다.

재령강저수지공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상해오신 대자연개조사업이였다. 재령강저수지가 건설되면 황해남도의 여러 군들과 황해북도의 은파군일대에 더 많은 물을 보내주게 되고 해주지구의 공업용수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고 재령강일대의 큰물피해를 막아낼수 있을뿐아니라 앞으로 개간될 간석지들에도 생명수를 충분히 대줄수 있었다.

얼마나 웅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조국강산은 얼마나 풍요하고 아름답게 변모되는것인가.

최기춘동무가 이런 생각으로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재령강저수지를 될수록 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우리 나라에서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굴지의 언제인것만큼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작업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사를 다그쳐 끝낼수 있는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최기춘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종래의 속도로 건설을 추진해나간다면 10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공사를 3년동안에 완공한다는것은 실로 아름찬 일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무조건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떨쳐나선 최기춘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공사순위에 따라 한공정씩 먹어들어가던 종래의 시공방식에서 벗어나 통이 크게 전반적공사를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러던 1976년 가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다음해 황해남도의 영농준비에서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물문제라는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사업소에 수천정미의 물을 빨리 잡아두었다가 다음해 모내기때부터 관개용수를 보충해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장 언제마감물막이공사를 하여 가을부터 저수지에 물을 잡아두어야 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세계의 관개력사에는 재령강저수지와 같은 큰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착공한 그해로 마감물막이를 한 실례가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담력을 키운 최기춘동무는 건설자들과 함께 결사전을 벌려 강물이 사품쳐흐르는 언제 2계단구간의 바닥처리와 흙붙이기를 불과 8일동안에 해제끼고 마감물막이건설을 시작한 그해에 성과적으로 해냄으로써 가물막이를 하고서야 마감물막이를 하던 기존공식을 깨뜨려버리고 관개력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건설을 시작하여 한해동안에 4년이나 걸린다던 공사과제를 수행하고 그해로 수천정미의 물을 잡아 다음해 봄부터 황해남도의 벌들에 생명수를 대주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령강저수지건설에 착수한 이후 공사의 매단계, 매 공정마다 실태를 일일이 알아보시고 건설력량이 부족하면 강력한 기계수단을 가진 증원부대를 보내주시고 설비, 자재가 걸리면 몸소 제때에 풀어주시였으며 난관이 앞을 막아나설 때면 대담하게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지혜를 틔워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재령강저수지 (은파호) 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였다. 저수지의 언제만 보아도 거기에 쌓은 흙을 1m 높이와 폭으로 펴나간다면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두번 오고갈만 한 방대한 량이였다.

주체67 (1978) 년 10월 3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은파호를 보시려고 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멀리 장수산을 배경으로 은물결 번쩍이며 아득히 펼쳐진 저수지를 바라보시며 언제우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풍치좋은 절벽이 호수에 뿌리를 내린채 그림처럼 수면우에 비끼고 이따금 물고기들이 은구슬을 뿌리며 수면우로 솟구쳐오르군 하였다. 산중의 《바다》를 이윽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은파호를 좋은 자리에 아주 멋있게 건설하였습니다. 은파호의 저수능력이 대단합니다. 서흥호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세계적범위에서 자연개조사업을 할수 있게 되였습니다.》**라고 만족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또 하나의 재부를 마련해주신 기쁨에 휩싸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피곤도 잊으신채 언제우로 걸음을 옮기시며 일군들에게 물고기도 많이 기르고 호수에 유람선도 만들어띄우며 주변에 나무도 많이 심을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기춘동무를 바라보시며 그동안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했는가고 물으시였다. 최기춘동무가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하여 기양관개, 압록강관개등 건설장들에 보내주었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동무를 외국에 고문으로 보내야 하겠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득 최기춘동무에게 나이를 물으시였다. 최기춘동무가 쉰여섯살이라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이에 비해 늙었다고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때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이 동무가 서흥호, 신곡저수지, 연탄호, 은파호를 건설하였다는것과 이번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는것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도 다 알고있다고 하시며 황해관개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이 은파호를 건설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면하여 사업소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최기춘동무가 제기하는 문제를 다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자연개조의 실천속에서 그 어떤 과업도 훌륭히 해낼수 있는 힘있는 부대로 자라난 황해관개건설사업소를 중히 여기시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최기춘동무를 부르시여 그 책임을 맡겨주군 하시였다.

주체70 (1981) 년 6월초의 어느날이였다. 함경북도사업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관개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곡식들이 마르고있는 실태를 료해하시고 즉시 최기춘동무를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기춘동무가 렬차에 올랐을 때였다. 그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자신께서 그전에 은파호에 갔을 때 그가 몸이 약한것을 보았다고 하시며 먼길을 오기에 힘들겠는데 편안히 오도록 보살펴주라고 다심한 심정으로 이르시였다. 그리고 렬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최기춘동무를 마중하여 태워오라고 친히 승용차까지 내보내주시였다.

최기춘동무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하였다고, 관개공사에 공로가 있는 황해관개건설사업소가 아무래도 함경북도의 관개공사를 도와주어야 할것 같아서 동무를 불렀다고 하시였다.

한없는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 말씀에 최기춘동무는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이튿날 함경북도, 청진시농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경북도에서 관개공사를 빨리 다그칠데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전후 첫 시기 어지돈관개공사를 비롯하여 많은 관개공사를 한 황해관개건설사업소의 자랑찬 행로를 감회깊게 추억하시였다.

《황해관개건설사업소는 서흥호를 건설하고 연탄호도 건설하고 신곡저수지도 건설하였으며 이번에 재령강저수지까지 건설하여 4개의 큰 저수지를 건설한 공로있는 부대입니다.》

공로있는 부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높은 칭호를 외우고 또 외워보는 최기춘동무의 가슴은 격정으로 뜨겁게 설레였다.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 표창이면 이보다 더 큰 표창이 있을것인가.

사실 황해관개건설사업소는 이 땅에 전쟁의 포연이 가시기도 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리를 잡아주신 어지돈관개건설장에 첫 삽을 박은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 크고작은 관개공사대상들을 맡아 건설하였다. 서해곡창 재령나무리벌은 물론이고 황해북도의 100리 미루벌에 생명수를 보내는 서흥호며 신곡저수지, 연탄호, 은파호, 룡강저수지, 9.18저수지 등 이름만 짧자고 해도 수없이 많았다. 그 모든 대자연개조공사는 사업소를 책임진 일군이나 건설자들이 일을 잘해서 성과적으로 할수 있은것이 결코 아니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를 관개망으로 뒤덮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였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모든 공로를 건설자들에게 돌리시여 사업소에 힘있는 부대, 공로있는 부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니 과연 이 믿음과 은정에 무엇으로 보답할수 있을것인가.

협의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공로있는 부대라는 높은 영예를 사업성과로 더욱 빛내일 결의를 굳게 다진 최기춘동무는 건설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맡겨진 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고 수령님께 또다시 기쁨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주시는 과업이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훌륭히 해내군 하는 최기춘동무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시였다. 그리하여 그에게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시고 국가적인 큰 행사때마다 불러주시였으며 건강을 걱정하시여 치료에 필요한 약도 마련하여 보내주시였다. 황해관개건설사업소가 국토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황해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로 되였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지배인의 직책을 맡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을 뜨겁게 가슴에 간직한 최기춘동무는 한생토록 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어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1964년말에 뜻밖의 일로 척추를 골절당한 그는 그때부터 교정기구를 늘 허리에 띠고 다니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력적으로 공사를 지휘하였다. 그리고 1987년에 불치의 병으로 자리에서 일어날수 없는 몸이 되였을 때에도 침상에 누워 기업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그 실천방도를 모색하였다. 참으로 최기춘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어 한생을 관개건설에 바친 충실한 일군이였다.

조국의 륭성번영에 이바지한 사람들의 공로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기춘동무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해에 그의 유해를 정방산의 풍치수려한 곳에 새로 꾸린 사리원렬사릉에 안치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충실하게 받들어 조국의 륭성번영에 이바지한 사람의 삶은 영생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애국렬사들의 생애가 깊이 새겨주는 진리이다.

오늘 우리 조국강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날로 아름답고 풍요하게 변모되여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인민의 락원으로 가꿔주신 사회주의조국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의 애국열의와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강성대국으로 솟아나 누리에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리수근

리보익녀사의 묘에 화환 진정

열렬한 애국투사이신 리보익녀사 탄생 134돐에 즈음하여 5월 31일 만경대에 있는 녀사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녀사의 묘앞에 놓여있었다.

리보익녀사의 묘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 곽범기, 박명선내각부총리들, 당,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리보익녀사의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성, 중앙기관, 군사대학, 교육, 보도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농장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일가분들이 만경대가문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번영을 위한 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바치신 리보익녀사의 빛나는 생애를 돌이켜보며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금야군 흥평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선동원들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학습하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해설선전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걸으시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 대한 내용을 생동한 사실자료와 결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우리 조국이 부강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농장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로농통신원 최만열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는 참관자들 —청산리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위인의 거룩한 행로에서

비상한 관찰력

어느해 5월 중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업부문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일군들에게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가 늦어졌다고 근심한다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 아직 서두르지 말라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은 의아함을 금치 못하였다. 봄이라고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차서 밤이면 도랑물에 살얼음이 끼군 하였던것이다. 추위가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늦잡으면 기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것 같아 그 사업을 서두르고있던 그들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까지는 4월 15일이면 개나리꽃이 피였는데 금년에는 며칠 늦은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꽃이 늦게 핀것을 보고 기상수문국에 알아보았더니 올해날씨가 8~9일 늦어진다고 하였다고, 모든 농장들에서 여기에 기준하여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는 날자를 잘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하나의 자연현상을 대하시면서도 비상한 관찰력으로 농사철기를 순간에 헤아려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는 경탄으로 끓어번졌다.

이리하여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는 일은 늦어진 날씨에 맞게 다시 조직되게 되였으며 그해 농사는 때늦게 내린 봄서리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였다.

몸소 밝혀주신 명안

주체57 (1968) 년 초 봄부터 우리 나라에는 이상기후현상으로 보기 드문 혹심한 왕가물이 들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고 비상협의회를 조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긴장해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리가 이 왕가물과 싸워이기기 위한 출로는 저수지들의 물을 모조리 퍼내는것이다, 천수답에는 개바닥을 파면 물이 있기때문에 하지전으로 모내기를 끝내면 된다, 천수답에는 예비모를 길렀다가 비가 온 다음에 모내기를 해야 한다, 밭곡식에는 비료를 더 주고 김을 매면 꼭 가물봉창이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그것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던 명안이였다. 회의참가자들의 가슴속에서는 언제나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 찬탄의 웨침이 절로 울려나왔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받아안고 온 나라 인민이 산악같이 떨쳐나 왕가물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그해 농사에서는 전례없는 풍작을 안아오게 되였다.

정순학

숭고한 미래관과 높은 창조정신

오늘의 대고조는 조국땅우에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성스럽고 보람찬 애국투쟁이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이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조국이 바라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애국자가 되자면 숭고한 미래관과 높은 창조정신을 체질화하고 모든 일을 만년대계로 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선군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미래관과 높은 창조정신이 깃들게 만년대계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고조에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미래관을 지니고 높은 창조정신을 발휘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선 모든 일을 멀리 앞을 내다보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가장 발전된 수준에서 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이 구상하고 현실로 전변시켜나가는 강성대국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나라,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륭성번영하는 대강국이다. 우리가 시대의 최첨단에 서있는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면 목표를 하나 내세워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 통이 크게 내세우고 무엇을 하나 만들고 일떠세워도 만사람을 경탄시키는 세계적인것, 만년대계의것을 창조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건을 하는 경우에도 당면한 수지와 일시적인 리익만을 타산할것이 아니라 전망적인 리익을 따져가며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가장 발전된 수준에서 개건함으로써 그것이 후세에 가서도 은을 낼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 식 CNC기술의 개발자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이들은 경제기술력에서 제노라고 하는 몇몇 나라들만이 가지고있는 CNC기술을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개발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하게 투쟁하여 끝끝내 이 기술에서 첨단수준을 돌파하였다.

대고조시대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는 이런 세계적인 창조물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와야 할 때이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심과 용감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 작전하고 내밀어도 세상을 들었다놓을수 있게, 조국의 존엄을 시대의 상상봉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일판을 벌리며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마는 영웅적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일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는 주체조선이 영원히 자주강국으로 존엄떨치고 **김일성**민족이 대대손손 무궁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성스럽고 책임적인 투쟁이다. 대고조의 참전자들에게는 멋따기나 요령주의가 추호도 있을수 없다.

지난 4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하막장에 써붙인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구호를 보시고 우리 병사들만이 생각할수 있는 정말 훌륭한 구호라고, 온 나라가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에는 민족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고귀한 피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위대한 령장의 무한한 사랑과 믿음이 어려있으며 대고조시대의 참된 애국자는 자기 창조물에 순결한 량심을 묻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새겨져있다.

최근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규모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건설, 간석지건설과 산림조성을 비롯하여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도처에 수많은 현대적인 생산기지들과 사회주의선경, 리상촌들을 일떠세웠다. 이 창조물들은 다 오늘과 래일을 이어주고 우리 조국의 끝없는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재부로 될것이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비약이 일어나는 오늘의 대고조시대가 조국과 인민의 천년, 만년미래를 담보한 위대한 창조의 시대로 자랑스럽게 불리울수 있게 투쟁하여야 한다. 하나하나의 창조물이 다 조국의 부강발전을 끊임없이 추동하고 인민들이 영원히 덕을 보는 만점짜리 창조물,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 이것은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본분이며 도덕의리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높이 발양해나감으로써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애국자로 삶을 빛내여야 할것이다.

김광진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친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

포전에서 작전하고 지휘

운전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올해 봄날씨는 류달리 변덕스러웠다. 그런것으로 하여 운전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도 지난 시기보다 모내기가 한주일 이상 늦게 시작되였다. 하지만 군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역적패당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철석의 의지안고 힘찬 전투를 벌려 며칠내에 모내기를 완전히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 성과의 비결을 물으면 사람들은 일군들이 현실에서 방법론을 찾고 완강하게 내민데 있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방법론을 옳게 세우는것은 모든 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됩니다.》

모내기시작을 앞둔 어느날이였다.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올려보낸 모내기일정계획을 보던 군책임일군은 운하협동농장의 모내기계획에 흥미를 가지게 되였다. 이 농장에서도 지난 시기보다 모내기를 늦게 시작할것을 계획하였는데 끝내는 날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것이였다. 결국 모내기적기를 보장하게 되여있었다.

그 담보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앞선 그는 운하협동농장에 내려갔다. 써레치기가 한창인 포전에서 책임일군을 만난 농장일군은 봄이 늦어졌다고 가을도 늦어지는것은 아니다,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선행공정을 앞세우면 얼마든지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적기에 해낼수 있다고 신심있게 말하는것이였다. 책임일군은 그와 함께 포전을 밟아보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해보았다. 이 농장에서는 제일 품이 많이 드는 논두렁짓기와 써레치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앞세워놓음으로써 모내기를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고 있었다. 이것은 본받을만 한 일이였다.

사실 모내기문제를 놓고 일군들속에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고갔다. 올해 모내기는 지난 시기보다 퍽 늦게 시작되기때문에 어차피 모내기가 그만큼 늦어지게 될것이라고 걱정하는 일군이 있는가 하면 모내기일정계획을 높이 세우면 일손이 딸리므로 지원로력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일군도 있었다.

(방도는 이 농장에서처럼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것과 함께 선행공정을 모내기에 쑥 앞세우는데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군안의 선전선동수단들을 협동농장들에 집중하며 모든 농장일군들이 품이 많이 드는 논두렁짓기와 써레치기를 앞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도록 하였다.

협동농장벌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모내기시작부터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이자면 품이 많이 드는 논두렁짓기와 써레치기를 앞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신심과 락관에 넘친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대중의 열의를 고조시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선행공정이 앞서나가고 농장벌마다에서 모내는기계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자 시간을 다투며 모내기성과가 올랐다.

이 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다른 한가지는 모내기성과가 오를수록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진행한것이다.

모내기가 한창인 관해협동농장의 포전들을 돌아보던 군일군은 어느 한 포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논두렁도 규모있게 짓고 써레도 반듯하게 친 포전인데 물이 적었다. 알고보니 논판의 수평상태를 료해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물을 좀 뽑은것이였다. 사실 방금 써레를 친 포전들은 얼핏 보기에는 수평이 잘 보장된것 같이 보인다. 물이 흐려있어 수평상태를 가늠하기 어렵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이 농장에서는 써레를 친 다음 물을 어지간히 뽑군 하였다. 그러면 땅이 보이는 부분과 물에 잠기는 부분이 있는데 일군들은 그것을 보고 고무래로 수평을 맞추도록 하였다. 더욱더 주목되는것은 이렇게 논판의 수평을 잘 맞추고 흙앙금이 가라앉아 어느 정도 꾸둑꾸둑해진 다음 모를 내니 좋은 점이 있었다. 우선 모를 깊지도 얕지도 않게 꽂을수 있어 좋았다. 또한 평당 포기수가 잘 보장된것은 물론 모살이도 잘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군일군들은 이 경험을 모든 농장들에 일반화하였다. 관해협동농장의 경험이 알려지면서부터 대오, 학산, 읍협동농장들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 일군들과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물론 농장원들의 일본새가 달라졌다.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라는 긍지를 안고 떨쳐나선 뜨락또르운전수들이 써레치기의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가고있을 때 논판고루기를 맡은 농장원들은 설친데가 생길세라 품을 들여가며 수평을 맞추어나갔다. 써레의 질을 높이고 논판의 수평을 잘 보장하는것만큼 모내기의 질과 속도가 높아졌다.

요즘 모내기가 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되는 군안의 농장들을 돌아보는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누구나 평당 포기수가 잘 보장된것은 물론 모를 낸 포전들에 물깊이가 알맞춤하게 보장되고있는것을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모내기현장에 내려가 좋은 경험을 찾고 제때에 일반화하면서 대중을 발동하고있는 이 군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본받을만 한것이다.

한주일동안에 열어놓은 돌파구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에서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자랑찬 혁신을 창조하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농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이들의 성과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있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곳 일군들은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오늘의 성과를 창조하게 하였다고 긍지높이 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모내기전투시작을 앞둔 어느날이였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는 관리위원장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모판마다에서는 실한 벼모들이 자라고있었고 뜨락또르들과 모내는기계들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출동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더이상 미흡한것이 없는가? 그는 작업반들을 돌면서 그 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흠잡을것이 없었다. 사실 불리한 기후조건으로 모내기를 퍽 늦게 시작해야 하는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으나 만나는 농장원들마다 한주일동안에 모내기를 끝내겠으니 념려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만족할수 없었다. 농장원들의 충천한 기세가 보다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하자면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해야만 하였다. 그날 저녁 열린 협의회에서는 관리위원장의 열정에 넘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우리 운하리를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였습니다.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킬 때 승리는 우리의것입니다.》

협의회에서는 일군들이 뜨락또르운전수, 모내는기계운전공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모내기가 끝나는 날까지 담당한 작업반에 나가 걸린것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줄데 대한 문제 등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토의되였다.

시작이 좋으면 결실도 좋기 마련이다. 써레치기시작부터 온 농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속에 그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농장일군들은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었다. 밤교대작업을 하는 뜨락또르들의 운전칸에는 언제나 농장일군, 작업반장들이 운전수들과 함께 있었다. 후방사업이 뒤따른것은 더 말할것이 없다. 결과 농장적으로 며칠동안에 모든 면적의 논에 대한 써레치기를 질적으로 끝내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모내기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농장일군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내는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공, 모공급수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였다.

제2작업반의 모내는기계운전공, 모공급수들이 기대정비를 깐지게 하고 주인다운 기풍을 발휘하면서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그리하여 이 작업반에서는 선참으로 모내기를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제6작업반을 비롯한 모든 작업반들이 그뒤를 바싹 따라섰다. 모내는기계운전공들과 모공급수들은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면서도 깊지도 얕지도 않게 모를 기술적요구대로 꽂아나갔다. 모보식을 맡은 농장원들은 하나의 빈 포기라도 있을세라 포전들의 구석구석까지 깐깐히 살피면서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담아 자기들의 진심을 다 바쳐나갔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기본면적의 모내기는 한주일동안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지금 이들은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끝낸 그 기세로 더욱 분발하여 리명박역적패당을 쓸어버리는 심정으로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있다.

단상

로력일수첩을 보며

박천군 률곡협동농장의 모내기전투장에 도착한 내가 관리위원장을 찾아 제3작업반의 한 포전에 이른것은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한 저녁무렵이였다.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한 분조원들이 논두렁에 모여앉아 총화를 짓고있었다.

그속에 앉아있는 녀성관리위원장의 해별에 탄 얼굴도 인상적이였지만 손에 든 로력일수첩이 펴그나 보풀져있는것이 나에게 류다른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당일군들과 관리일군들, 작업반장, 분조장들은 모든 농사일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이끌고나가야 합니다.》

나와 마주한 관리위원장은 농장일군 누구를 만나보아도 이런 보풀진 로력일수첩을 볼수 있다고 말하였다.

보풀진 로력일수첩, 거기에는 다 비껴있었다. 동트는 새벽이면 남먼저 모내기전투장에 달려나와 작업준비를 갖추어놓고 모뜨기를 하였다는 작업반장들이며 《탄약》은 념려 말라면서 하루종일 모운반을 맡아하던 리당일군의 모습도, 달빛어린 논두렁길을 걸으며 혹 물에 뜬 모는 없는가, 새는 물고는 없는가 깐깐히 살펴보고 대책을 세웠다는 농장기술일군의 모습도…

《이 로력일수첩에 우리 일군들이 얼마나 이신작칙했는가 하는 정도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관리위원장이 례사로운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바로 그랬다. 로력일수첩은 농장일군들의 이신작칙의 열도를 보여주는 척도였다.

그러니 저 보풀진 로력일수첩은 모든 농사일에서 앞채를 메고나가는 주공전선지휘관들의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말없이 증명해주는 량심의 증표가 아니겠는가.

마지막까지 실한 벼모를

정주시 오산협동농장에서

정주시 오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쳐 실적을 올리고있다. 모내기전투가 고조되고있는 요즘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마지막모가 나갈 때까지 모판관리를 잘하여 실한 벼모를 보장할 한마음안고 책임성을 높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벼농사에서는 모를 튼튼히 키워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어느날이였다. 농장일군들은 해당 단위로부터 다음날 새벽에 세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간다는 련락을 받게 되였다. 농장일군들이 한개 작업반씩 맡고 급히 모판으로 달려나갔다. 관리위원장이 제5작업반의 모판에 이르렀을 때였다.

모판에는 벌써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달려나와 붐비고있었다. 바람막이바자가 넘어지지 않게 기둥을 든든히 박는 초급일군들, 비닐박막이 날리지 않도록 새끼줄을 조여매는 모판관리공들, 나래를 정성껏 덮어주는 기술일군들…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농장에서는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벼모를 잘 키워낼수 있었다.

이때만이 아니였다. 강한 바람이 불어칠 때에도, 비가 쏟아질 때에도 어느 작업반에서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모판에 달려나와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 벼모들이 사소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였다.

농장일군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기술적지도를 짜고들면서 모판관리공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게 하였다. 또한 모기르기를 잘하고있는 오명신, 김근실, 문옥화동무를 비롯한 모판관리공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고 그들을 내세워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땅을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모판관리공들은 벼모를 층하없이 키워내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날이 갈수록 모든 작업반의 벼모들이 푸르러갔다.

이들의 뜨거운 마음이 어린 모판들에서는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벼모가 층하가 없이 튼튼하게 자라났다. 그 정성에 받들려 풍년을 담보하는 실한 벼모들이 포전으로 나가고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멸적의 기세로 날마다 모내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현지보도

멸적의 기상 나래친다

박천군 단산협동농장 청년작업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선구자가 되여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 서야 할 세대는 다름아닌 우리 청년들입니다.》

여기는 박천군 단산협동농장 청년작업반 모내기전투장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소동을 짓뭉개버리려는듯 높이 울리는 모내는기계의 동음, 멸적의 기상안고 번개같이 일손을 놀리는 청년들로 하여 모내기전투장의 분위기는 비상히 앙양되여있다. 일매지게 지어놓은 논두렁을 따라 꽂은 붉은기가 바다바람에 세차게 나붓기고 포전방송에서는 혁명가요가 격조높이 울려퍼진다.

모내는기계의 발동소리가 높아가는 속에 《푸른 주단》이 시간마다 넓어진다. 구슬땀을 흘리며 모내기를 다그치는 청년작업반원들의 가슴가슴은 마냥 부풀어오른다.

기운차게 모내는기계를 몰아가는 운전공청년의 얼굴에도, 날렵하게 모를 섬기는 모공급수처녀들의 얼굴에도 강성대국의 대문을 쌀로써 남먼저 열어제끼려는 굳은 결의가 어린다.

한배미의 모내기를 끝낸 모내는기계가 다음배미로 넘어간다. 기다리던 작업반원들이 모통에 모춤들을 옮겨담는다.

《오늘도 150%는 문제없겠구만.》

청년들과 어울려 모내기를 하던 관리위원장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한다.

《200%도 자신있습니다.》

모내는기계운전공이 무쇠같은 주먹을 흔들어보이더니 능숙하게 기계를 몰아간다. 모공급수처녀들의 일손이 빨라진다. 모내는기계가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전진하는데 따라 모손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실한 모들을 포전에 꽂아나간다. 곧추 선 푸른 벼모들이 봄바람에 하느적거린다.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공동구호에서는 청년들에게 강성대국의 새날을 부르는 대고조전투에서 청춘시절의 떳떳한 자서전을 새기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어린 간석지벌에 쌀더미 높이 쌓아 강성대국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렵니다.》

작업반장 정태남동무의 신심넘친 목소리이다.

바람세찬 서해기슭 농장을 몸소 찾으시여 간석지도 개간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영광의 그 자욱우에 간석지벌이 솟아나고 기계로 모를 내는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청춘들의 일손마다에 어찌 불바람이 일지 않으랴.

땅도 《청춘》이고 그 땅을 가꾸는 주인들도 청춘이다. 불타라 심장아, 청춘의 심장아라고 노래부르며 위훈을 창조해가는 간석지벌의 미더운 주인공들이다.

역적패당을 쓸어버릴 멸적의 기상 나래치는 속에 포전은 더더욱 푸르러진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1면에서 계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입니다.》

토론자들은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평안북도는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고 하면서 작업대상이 방대하고 작업조건이 불리할수록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토지들을 질적으로 정리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지휘성원들과 돌격대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가슴깊이 새기고 토지정리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데서 송풍기가 되고 가속기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운전수들은 불도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토지정리전투장에서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림으로써 경희극 《산울림》의 주인공들처럼 생의 흔적을 뚜렷이 남기는 선군시대의 참된 투사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날강도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은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이른바 《응징》과 《보복》을 떠들어대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고 하면서 모두가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무자비한 섬멸전을 벌릴 만단의 준비를 갖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지휘관들과 일군들, 군인들, 돌격대원들이 제2단계 토지정리과제를 제기일에 무조건 끝냄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며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화차수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평양차량수리공장에서— 전성남 찍음

일군들의 책임성과 감정과의 사업

문천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사업에서

정신력발동은 곧 대중의 감정과의 사업이다.

그러면 감정과의 사업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얼마전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을 불러일으켜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문천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대답해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있어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할수 있습니다.》

인민생활의 결정적전환의 해인 올해 시에서는 정초부터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내밀었다.

그 과정에 있은 일이다.

식료공장의 과자생산공정기술개건정형을 알아보려고 현지에 나갔던 시당위원회 비서 동창식동무는 그날 부서지도원과 마주앉았다.

담당단위에 대한 선전선동사업정형을 료해하기 위해서였다.

시에 깃든 백두산장군들의 령도업적에 대한 해설담화며 공동사설에 대한 학습담화, 기동예술선동대활동정형, 직관선동정형 등 비서의 물음에 지도원은 막힘이 없이 대답하였다.

당연한 일이였다. 부서에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 경공업공장들을 활성화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려는 시당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집중적인 선전선동공세를 폈던것이다.

정초부터 식료공장을 담당하여 그동안의 사업에 대하여 자신있게 대답하던 지도원의 말문이 막힌것은 그 다음이였다.

《공장의 과자생산공정기술개건은 잘 진척되고있습니까?》

그 물음에만은 자신이 없었다. 사실 련속흐름식과자건조장치에 필요한 부속품가공이 걸려서 잘 나가던 기술개건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었던것이다. 그제서야 지도원은 비서가 자기와 마주앉은 의도를 깨달았다.

선전선동사업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것이였다. 물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세가 여느때없이 앙양된것이 그 결과라고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면 응당히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야 하지 않는가.

생각에 잠겨있는 지도원에게 동창식동무가 말하였다.

물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 마음먹은대로 순탄하게 되는것이 아니다. 동무도 할바를 하였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자. 발브공장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호소해보니 련속흐름식과자건조장치제작에 필요한 부속품은 자기들이 품을 좀 들이면 얼마든지 깎을수 있다고 한다. 동무가 그곳까지 걸음을 하였더라면 부속품은 이미전에 해결될수 있었을것이고 기술개건도 계획대로 진척되였을것이다.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못하였는가. 그것은 동무자신이 선전선동사업만 잘하면 그만이지 기술실무사업에까지 손을 댈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결국 주인다운 태도가 없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전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있어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선전일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해당 단위들의 사업을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 서는것이다.

그날 지도원은 큰 교훈을 찾았다. 선전선동사업은 강연이나 해설담화, 예술선동을 몇번 하였는가 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실지 해당 단위사업이 얼마나 잘되는가 하는것으로 평가된다는것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책임지는 립장에 서있는가 하는것이였다.

그후 지도원은 발브공장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선전선동활동을 벌려 필요한 부속품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학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소금발바닥타일생산에 필요한 파비닐이 부족하여 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을 때 시당위원회의 해당 부서 일군들이 동, 인민반들에 나가 주민들속에서 선전선동활동을 벌려 수십t의 파비닐을 수집하여 보내준 이야기도 그러한 사실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실지 지도일군들의 주인다운 태도는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높이 분출시키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7 000㎥의 흙을 처리하여 소금발저류지를 확장하고 한쪽으로는 수만매의 바닥타일을 생산하면서 다른쪽으로는 소금발결정지의 타일깔기공사를 완공하여 적기에 소금생산에 들어갈수 있게 한것은 군중들속에 들어가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걸린 문제해결에 어깨를 들이밀고 이신작칙한 시당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큰 힘을 주었기때문이다.

그러면 일군들의 책임성문제가 대중의 감정과의 사업과 어떤 련관이 있는가.

사물현상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심리현상인 감정은 기쁨이나 책임성과 같은 적극적인 감정일 때 인간의 활동을 추동하지만 보수적인 감정일 때는 그 반대현상을 초래한다.

여기서 대중의 책임성문제를 분석해본다면 그것은 일군들의 태도여하에 많이 관계된다.

우리와 마주앉은 동창식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중은 언제나 정확하게 봅니다. 일군들이 실지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 얼마만큼 어깨를 들이밀고 진실로 안타까와하며 밤잠을 못 자는가. 자신들의 눈에 비낀 일군의 모습이 헌신적일 때 대중은 그런 일군을 따르게 되고 사업에서 열성을 내게 되는것입니다.》

옳은 말이다. 결국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사업하는것, 그자체가 대중의 적극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선동으로 되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문제, 이것이 대중의 감정과의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취재에 앞서 우리에게 사회적지위나 나이에 따라 웃사람과 아래사람을 가를수 있겠지만 혁명과업수행에 대한 책임성문제를 론할 때는 높고낮은 사람이 따로 없다고 하던 시당책임일군인 안세환동무의 말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었다.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시에서는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일을 많이 하였다. 시의 목표는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이 한가지라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자는것이다. 그날을 위하여 시당책임일군으로부터 시작하여 누구나 뛰고 또 뛴다. 일군들의 이런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이 대중의 감정과 정신력에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가를 문천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사업은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림현숙

따사로운 해빛아래 주체음악예술의 미래가 꽃펴난다

국제아동절을 맞는 평양음악학원부속 경상유치원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래일을 눈앞에 그려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이 수도의 아침에도 그대로 비낀다.

곳곳에서 새로운 위훈과 혁신, 전진의 또 하루가 약속되여있는 일터로, 해빛밝은 교정으로 향하는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기쁨이 차넘친다. 그 기쁨을 가득 싣고 수많은 뻐스, 궤도전차, 무궤도전차들도 경쾌하게 내닫는다.

여기에 새날의 활력을 더해주는 류다른 광경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경상유치원》이라는 글발을 자랑하며 힘차게 달리는 소형뻐스들, 수도의 거리거리를 돌며 귀여운 어린이들을 태우고 달리고달려 하나, 둘 평양음악학원부속 경상유치원으로 들어선다. 유치원교양원들이 달려나와 어린이들을 맞아들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혁명의 후비대입니다.》

《경상유치원》하면 전도유망한 음악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는 단위로 널리 알려져있다.

뜻깊은 올해의 태양절음악회에 출연하여 능란한 피아노연주로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마신아어린이며 제56차 슈만국제청소년피아노콩클에서 1등상과 특별상을 쟁취한 유별미학생도 이 유치원 졸업생이다.

어찌 이들뿐인가.

이곳 유치원에서 재능의 싹을 활짝 꽃피운 많은 졸업생들이 《2. 16예술상》개인경연입선자, 국제콩클수상자, 중앙예술단체 지휘자들로 자라났으며 공훈국가합창단, 은하수관현악단,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 국립교향악단,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을 비롯한 이름있는 예술단체들과 예술교육부문에서 실력있는 창작가, 연주가, 교원들로 활약하고있다.

주체음악예술의 화원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해가는 제자들의 름름한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이곳 일군들과 교양원들의 가슴마다에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격정이 끝없이 샘솟는다.

유치원의 연혁에 새겨진 지난 수십년세월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는 우리 당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과 은정으로 가득찬 영광과 행복의 나날들이였다.

어린이들의 예술적재능의 싹을 제때에 찾아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워주는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내세우고 수십년전에 벌써 이 유치원에 조기음악반을 내오도록 은정을 베풀어준 당의 뜨거운 사랑,

당에서는 부모들도 미처 모르는 자녀들의 재능의 싹을 하나하나 찾아주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졸업생들을 음악기초교육을 담당한 교양원들로 보내주었다. 2층짜리 건물만 있던 유치원구내에 3층, 4층 건물이 일떠섰다.

어린이들이 아버지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피아노를 타며 마음껏 재능을 꽃피워갈 때 유치원일군들과 교양원들의 격정은 또 얼마나 컸던가.

그럴수록 사회주의만세소리,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찬가를 가슴벅차게 터쳐갈 불같은 애국의 열정으로 온 유치원이 끓어번졌다.

이곳 일군들과 교양원들이 어린이들의 뛰여난 음악적소질과 재능을 찾아내기 위해 수도의 탁아소들에로 다닌 길은 그 얼마이며 어린이들에게 튼튼한 음악적기초와 악기연주기초를 심어주려 새로운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탐구도입해가던 낮과 밤은 또 얼마였던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더욱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년대와 년대를 이어 훌륭한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오랜 기간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음악인재들을 키우는데 진심을 바쳐온 김순녀, 김향숙, 한정애, 조수복, 김련옥, 전미숙동무를 비롯한 교양원들이 집필제작한 《어린이시창》, 《어린이피아노선곡집》, 《어린이첼로배우기》(1, 2)를 비롯한 수많은 교재, 도서, 동화상편집물들이 어린이들의 재능과 나라의 조기음악교육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고 이곳 어린이들은 전국적인 경연들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갔다.

유치원에 깃든 당의 은정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아직은 부족한것이 많은 속에서도 원장 리강죽동무를 비롯한 이곳 종업원들이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합쳐 자체의 힘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교양조건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온 나날에 유치원은 더욱 몰라보게 변모되였고 《영예의 2중 1월25일모범유치원》으로 되였다.

조국의 미래를 안아키우는 친어버이사랑은 끝이 없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유치원어린이들의 소박한 악기연주도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유치원의 조기음악교육발전의 새로운 앞길도 환히 열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이곳에서 전도유망한 음악예술인후비들을 키워내는 조기음악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여주신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은 어린이들의 통학길에도 세세히 비쳐들었다.

그 사랑속에 이곳 유치원어린이들을 위해 은정어린 새 통학뻐스들이 수도의 거리를 누비며 기운차게 달리게 되였다.

유치원에서 미래의 피아노연주가로 자라는 한 어린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해빛밝은 유치원에서 딸이 우리 말과 글은 물론 음악적재능도 마음껏 꽃피워가는것만 해도 더 바랄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학뻐스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녕 이곳 유치원은 따사로운 해빛아래 기쁨의 노래, 고마움의 격정, 보답의 일념만이 차넘치는 곳, 조국의 미래가 소리치며 자라는 행복의 요람이다.

오늘은 국제아동절이다.

조국의 밝은 미래를 싣고 사랑의 《통마》들이 오늘도 수도의 거리거리를 주름잡아 달리고있다. 그 《통마》의 주인들인 유치원어린이들이 명절날에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더욱 높이 울려갈것이다.

선군의 푸른 하늘아래 번영하는 사회주의대지에 밝아오는 강성대국의 래일을 부르며.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철룡

혜산의학대학에서

자질향상을 방법론있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교원학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잘하여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야 합니다.》

혜산의학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속에서 자질향상사업을 방법론있게 잘하고있다. 특히 학위소유자대렬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학장 리석모동무를 비롯한 대학안의 일군들은 교원들속에 과학연구사업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사상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자신들부터 과학연구사업과 학위론문집필에 앞장섰다.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학위를 소유하도록 단계별 목표를 바로세운 대학에서는 대학과학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과학기술발표회, 과학착상발표모임 등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의 탐구심을 적극 계발시키고 창조적열의를 끊임없이 북돋아주었다.

한편 과학연구과를 실력있고 능력있는 교원들로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과학연구과에서는 매 교원들의 실력과 준비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학위소유자대렬을 늘일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그리고 교원, 연구사들의 학위론문에 대한 지도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대학에서는 학위론문집필에 들어간 교원, 연구사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집필실을 훌륭히 꾸려주고 과학연구과와 대학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특히 교원, 연구사들이 학위론문변론이나 학술발표회준비를 할 때에는 자체의 후방기지에서 나온 꿀과 영양식료품도 안겨주고 가정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는 등 온갖 성의를 다해 도와주었다.

또한 교원, 연구사들이 학위를 받고 돌아올 때면 대학의 책임일군들은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꽃다발도 안겨주고 속보판에도 크게 소개해주었으며 축하모임과 경험발표회 등 정치적평가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이렇게 되니 교원, 연구사들은 신심과 활기에 넘쳐 과학연구사업에 달라붙게 되였다. 가정부인교원들도 불타는 정열을 안고 학위론문집필에 달라붙었다.

강좌장 장보옥, 교원 엄영희, 리안미, 전금희, 김영희동무를 비롯하여 학위론문심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많은 교원, 연구사들의 학위론문들이 다 이런 믿음과 후원속에서 알찬 열매를 맺게 되였다.

오늘 혜산의학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더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불타는 한마음으로 자질향상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진 철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떠미는 《산울림》열풍

황해북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선군령도를 따라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의지, 투철한 혁명정신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공연이 사리원시에서 성황리에 계속되고있다.

황해북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공연은 하루 2회씩 진행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희극 《산울림》의 지방순회공연에 깃든 당의 사랑과 깊은 의도가 도의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하여 조직사업을 잘하고있다.

관람조직을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있게 하고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맞물려 진행되도록 짜고드는 한편 한차례, 한차례의 공연들이 그대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강성대국건설의 《산울림》으로 메아리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품을 들여 내밀고있다.

모든 단위들에서 공연관람후에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모임을 진행하도록 하여 공연에 대한 반향이 곧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지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있다.

도안의 시, 군당책임일군들과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들 그리고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들과 리당비서들의 공연관람을 조직하고 그 자리에서 실효모임을 하여 그들이 공연의 메아리를 가슴에 지니고 방방곡곡에서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안고 도의 인민들을 찾은 국립연극단의 출연자들도 연기형상에 정열과 심혈을 쏟아부어가며 전투적인 공연활동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긴장한 공연활동의 짬시간에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협동벌을 찾아 농장원들의 일손을 힘껏 도와 그들을 로력적혁신에로 불러일으켰다.

황해북도의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건설되고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개관의 첫 자욱을 찍으신 현대적인 극장에서 훌륭한 공연을 보게 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심장의 맹세로 가슴들을 불태우고있다.

도안의 당, 정권,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은 지금 대고조시대의 일군이라면,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보아야 할 공연이라고 하면서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갈 맹세를 다졌다. 선군시대의 청년전위라는 높은 각오를 가지고 강성대국건설투쟁의 앞장에 서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들도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당의 부름에 언제나 높은 실적으로 보답할 불타는 열의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강성대국의 《산울림》이 우리 황해북도에서 제일먼저 울려나오게 하겠다.

—래일에 대한 큰 포부를 안고 더욱 훌륭한 리상촌을 이 땅우에 일떠세우리.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목소리가 강성대국건설자의 심장의 메아리로 울려오는 공연, 누구나가 다 보고싶어하는 공연은 도안의 인민들의 열렬한 호응속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계속되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가극 〈홍루몽〉공연은 중조친선관계발전에 기여》

피바다가극단 중국 무한시에서 공연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피바다가극단이 호북성 무한시 호북극원에서 가극 《홍루몽》공연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 무한시에서 우리 예술인들은 시연회로 예정되였던 5월 25일부터 련 3일간 공연무대를 펼쳐 온 도시가 조중친선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하였다.

성과 시의 간부들과 각계 인사들, 무한시민들, 남경과 무창 등 중국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로 극장은 성황을 이루었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으며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호북성당 서기 라청천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말 훌륭한 공연을 보았다.

음악, 성악, 무용, 무대미술 등 모든 면에서 가극은 완전무결하다.

우리는 조선예술인들의 창조정신과 풍모를 따라배워야 한다.

가극 《홍루몽》공연은 중조친선관계발전에 기여하고있다.

호북성당 선전부장 리춘명은 공연을 보고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예술인들이 중국의 4대고전명작의 하나인 《홍루몽》을 가극으로 손색없이 형상하였다.

배우들의 연기가 얼마나 생동한지 당대 중국사람들을 보는것만 같다.

주역, 단역 할것없이 모든 배우들이 노래도 연기도 다 잘한다.

조선예술인들은 작품의 세계를 완전히 파악하고 가극을 무대에 올리였다.

이것은 그들이 중국인민에 대한 두터운 친선의 감정을 가지고있으며 중국문화에 대한 리해가 깊다는것을 보여준다.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이 없이는 이런 훌륭한 가극이 나올수 없다.

우리는 성의 주요예술단체 책임일군들로 참관단을 조직하여 피바다가극단의 창조경험을 배우도록 하였다.

조선예술인들이 더 많은 예술작품을 가지고 호북성을 방문하기 바란다.

호북성지방극극원 부원장 호관풍은 깜짝 놀랄 정도의 공연을 관람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원작의 내용을 잘 살리면서도 착상이 독특하고 예술적형상도 성공한 가극이다.

전문가로서 탄복을 금할수 없다.

력사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시대의 미감에 맞게 고전작품을 가극으로 옮긴 조선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공연을 보고 예술의 진가를 느꼈다.

호북성황매극단 국가1급배우 리이청은 가극의 매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전작품을 가극으로 재치있게 형상하였다.

때문에 사람들이 내용을 쉽게 리해할수 있다.

완전무결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무대예술에서는 세부가 홀시되는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조선예술인들은 사소한것도 놓치지 않고 품을 들여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련꽃춤장면이 정말 황홀하다.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희한하고 성공한 무용작품이다.

원작에는 리해하기 어려운 시어들과 대사들이 많은데 조선판 가극에서는 일반사람들도 다 리해할수 있도록 가사가 창작되였다.

가극은 고전작품을 새롭게 형상하는데서 하나의 큰 혁신으로 된다.

강한대학 교수 가소리는 조선판 가극 《홍루몽》은 사랑선을 주선으로 하여 원작의 기본내용을 함축하여 형상하였다,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다, 원작의 인물들을 보는듯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무한대학 문학박사 리용은 조선의 무대예술은 최고급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중국의 색채를 살린 결과 고전명작이 완전무결하게 형상될수 있었다고 찬탄하였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선판 〈홍루몽〉을 보시라》, 《놀랍다. 집단주의정신이 매우 강하다》, 《조선의 가보옥, 림대옥, 설보채가 왔다》 등의 제목으로 가극과 출연자들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소개한 여러 신문들도 날마다 공연소식과 반향을 전하는데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무한만보》 5월 26일부는 《조선판 〈홍루몽〉은 어느 정도 신비할가, 베이징과 장사에서의 공연에 대해 출판보도물들이 높은 평가를 하고있는데 정말 그럴가?》라는 물음으로 서두를 뗀 글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어제 저녁 가극 《홍루몽》이 호북극원에서 자기의 신비로운 모습을 펼쳐보임으로써 그에 대한 대답을 주었다.

관중은 극중인물들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있다.

하지만 가극을 관람하고 출연자들의 진실하고 생동한 연기에 홀딱 반하여 황홀하기 그지없는 공연이라고 말하고있다.

이렇듯 섬세하게 형상한 가극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장강상보》 5월 27일부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있는 공연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면서 조선예술인들은 고전소설 《홍루몽》의 줄거리와 극중인물들을 신비스러울 정도로 훌륭하게 형상하였다, 관중은 국세계에 완전히 심취되여 《황홀하다.》, 《아름답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썼다.

《초천도시보》 5월 27일부는 《조선판 〈홍루몽〉 무한에서 대절찬을 받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중국의 여러 도시를 거쳐 무한에 온 조선판 가극 《홍루몽》은 생동한 무대배경과 독특한 배합관현악,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용으로 관중들을 작품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특히 고요한 달빛아래에서 펼쳐진 우아한 무용은 관중들을 매혹시켰다.

공연이 끝나자 전체 관중이 일어서서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조선예술에 대한 경탄의 분출인것이다.

【베이징발 조선중앙통신】

영웅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을 가슴에 새겨가는 참관자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세계금연의 날》에 즈음한 행사진행

《세계금연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5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보건부문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세계보건기구대표부 성원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세계금연의 날》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금연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세계금연의 날》에 즈음하여 내놓은 주제에 맞게 담배로부터 녀성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그들이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행사에서는 《세계금연활동의 추세와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금연제품전시장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사진, 미술, 수공예품전람회 알바니아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알바니아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1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진, 미술, 수공예품전람회가 알바니아의 티라나에서 5월 17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우리 나라 기발과 알바니아기발이 드리워져있었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 사진, 미술작품,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알바니아 외무성, 문화성, 국가력사박물관의 인사들과 군중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알바니아 국가력사박물관 총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알바니아와 조선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1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진, 미술, 수공예품전람회가 개막된것을 축하한다.

이번 전람회는 알바니아인민으로 하여금 조선에 대해 더 잘 알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교류를 적극화해나갈것이다.

전람회장을 참관한 알바니아 외무성 쌍무관계총국장은 이번 전람회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에서 매우 의의있고 중요한 계기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나가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품들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 관계가 확대발전되리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성실한 교육자

신흥군 경흥중학교 교원 강순영동무는 선군시대 교육자된 영예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교단에서 자기의 열정을 바쳐가는 성실한 교육자이다.

그는 선군조선을 받들어나갈 나라의 기둥감들을 키워간다는 긍지로 가슴끓이며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학생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한 교수방법을 탐구하는데 정력을 바치고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얼마전에는 그가 만든 교편물이 군전시회에 출품되여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였고 많은 제자들이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미더운 주인공들로 자라났다.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교육자의 본분을 다해가는 그를 학교안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들도 존경하며 따르고있다.

로농통신원 림학철

기술을 혁신하여 흥하는 일터

흥남구두공장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흥남구두공장을 찾았다.

구내의 둘레와 개건된 생산건물주변은 물론 곳곳에 갖가지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꽉 들어차있고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가며 지저귀는 아름다운 새들의 울음소리로 하여 마치 숲속에 있는듯한 감을 주었다. 그런가하면 종업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면모를 일신한 공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를 그대로 엿볼수 있었다.

《지금 우리 로동자, 기술자들의 생산의욕은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의 하나인 경공업공장에서 일하는 긍지로 모두의 가슴이 한껏 부풀어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심경희동무의 말이였다.

그는 의미있는 웃음을 지으며 공장속보판에 게시된 경쟁도표를 가리켰다. 직장, 작업반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어 어느 단위가 제일 앞섰는지 대뜸 분간하기 어려웠다. 경쟁도표는 생산실적뿐아니라 기술을 혁신하여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인 내용도 첨부되여 평가되고있었다.

과연 어떤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지 하는 흥미를 가지고 우리는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았다.

공장에서는 지난해 웃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기술개건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신발창생산을 위한 원료공정을 새로 꾸리는데 달라붙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건물을 개조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들이대면서 필요한 보조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해냈다. 앙양된 대중의 투쟁열의로 하여 예정기일보다 앞당겨 끝내고 생산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리게 되였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사장 박태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기술혁신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한가지이상의 합리화안과 기술혁신안, 창의고안을 내놓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혁신적인 방안들이 쏟아져나왔다. 《4. 15기술혁신돌격대》 대원 한학명, 제화직장 수리공 김길호동무는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왕성한 투지로 유압식으로 바닥을 압착할수 있도록 설비를 개조하여 신발창의 접착강도를 기술적요구에 맞게 원만히 보장하고 생산량을 두배나 끌어올리였다. 서로 말없는 경쟁이라도 하듯 다른 수리공은 풀칠을 정확히 할수 있게 선긋기설비를 제작하였는가 하면 또 다른 로동자는 신발뒤축다림설비를 생산에 받아들여 제품의 질제고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기술혁신투쟁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로 회전열처리설비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도입하여 전력소비를 줄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개선할수 있게 한 공정기사 김명철동무와 《4. 15기술혁신돌격대》 대원들의 이야기, 농민들에게 보내줄 장화생산에서 큰 전진을 이룩한 로동자, 기술자들의 자랑, 신발연구소와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재생고무를 생산에 리용할수 있게 한 사실…

기술을 혁신한 보람이 있어 공장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매달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금속공업부문에 질높은 신발을 보내주었으며 여러가지 신발을 팡팡 생산보장하고있다.

보고 들을수록 참으로 기술을 혁신하여 흥하는 일터였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술혁신의 주인이라는 드높은 자각을 지니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대고조시대의 하루하루를 값있게 빛내여가는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기풍을 잘 알수 있었다.

본사기자 오철훈

민족을 등진 역적무리는 결코 오래갈수 없다

도마우에 오른 반역《정권》

《지방자치제선거》가 박두한 지금 남조선민심은 《실용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지로 끓고있다.

《〈선거〉를 계기로 남조선정치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 새살이 돋게 하듯 부패한 현 집권세력을 완패시켜 진보개혁의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선거〉에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주자.》…

남조선각계에서 울려나오는 이 목소리들은 집권 2년 남짓한 동안 줄곧 반인민적악정만을 일삼으며 인민들에게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역적패당에 대한 응당한 단죄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역적패당은 집권할 때 《경제살리기》니, 《선진화사회건설》이니,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정치》니 하면서 별의별 화려한 《공약》들을 다 쏟아냈다. 인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것이 〈실용정치〉의 기본》이라느니, 《새 〈정부〉는 일하는 실용적, 창조적〈정부〉가 될것》이라느니 하고 요란하게 광고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역적패당은 집권후 그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줴던지고 반인민적이고 부패한 통치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남조선을 온갖 사회악이 만연하는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켰다.

지금 역적패당이 《경제살리기》의 미명하에 강압적으로 추진하고있는 《4대강정비사업》을 놓고보자.

《4대강정비사업》이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집권자가 이미전부터 꿈꾸어온 《대운하계획》의 변종이다. 《대운하계획》은 세면이 바다로 되여있는 남조선에서 현실적의의와 경제적효과성이 전혀 없고 로력과 자원만 랑비하는 《시대착오적인 토목공사》, 《생태환경만 파괴하는 재앙계획》이다.

하기에 역도가 《대운하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떠들었을 때 남조선주민의 70%이상이 그것을 규탄배격해나섰다.

바빠맞은 역도는 《대운하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에서는 그 이름을 슬쩍 《4대강정비사업》으로 바꾸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4대강정비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공사를 강행하고있다. 이로 하여 강오염이 더욱 심화되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위기에 놓였으며 수만명의 농민들이 농사지을 땅을 잃어버리고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되였다.

결국 《4대강정비》공사는 《경제살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재정위기만 초래했으며 인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을 재벌들에게 쏟아붓고 대신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무서운 재앙거리인 동시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거스르는 《실용정권》의 반인민적악정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세종시수정안》의 강행추진놀음도 마찬가지이다.

세종시문제로 말하면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선거공약》의 하나로 들고나왔던것이다. 하지만 집권후 세종시건설이 이전 《정권》의 성과로 인식될수 있다는 위구심을 품은 반역도배들은 저들의 《공약》을 서슴없이 차버리였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그 무슨 《비효률》이니 뭐니 하면서 행정도시건설을 예견한 《세종시원안》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경제도시를 건설한다는 《세종시수정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인민들과 한 약속을 줴버리고 《세종시수정안》을 강행추진하는 괴뢰들의 망동은 남조선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불러일으켰다.

보수패당이 《세종시수정안》을 들고나온 밑바탕에는 다른 속심도 깔려있다. 그것은 저들과 《정경유착》의 흑막관계를 맺고있는 재벌들에게 도시개발권을 주어 뭉치돈을 벌게 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아내여 돈주머니를 불구자는것이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여론의 항의규탄을 무릅쓰고 《세종시수정안》을 추진하는 보수당국의 망동을 두고 《과시 강부자〈정권〉다운 행위》, 《막대한 인민혈세를 재벌들에게 안겨주기 위한 1%부자정책의 절정판》이라고 야유조소하였다.

실제로 괴뢰당국은 충청남도지역의 현지주민들로부터 세종시건설을 명분으로 빼앗은 방대한 토지를 《세종시수정안》에 따라 도시개발업체들에 헐값으로 넘겨주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이 지역 인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아 재벌들의 배만 불리워주는 반역행위가 아닐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역적패당은 근로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을 악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음으로써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보수패당의 집권이후 끊임없이 터져나온 대규모적인 부정부패행위중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현 집권세력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이란 거의 없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리명박집권기간에 권력형부정부패가 토착화되였다.》고 개탄하고있겠는가.

최근에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한나라당》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더기불법뢰물사건들만 놓고도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의 부정부패행위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아 부귀와 향락을 누리는것이 보수집권세력의 꿈일진대 이런자들이 《민심을 돌보는 따뜻한 정치》를 한다는것이 과연 어울리기나 하는 말인가. 인민을 기만우롱하며 온갖 악정을 일삼은 역적패당의 반역적정체는 날날이 드러났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보수패당의 기만적인 《공약》에 속아 《지지표》를 던진 사람들은 자신들을 한탄하면서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분풀이를 단단히 하겠다고 벼르고있다.

보수패당이 《지방자치제선거》를 노리고 또다시 민심을 꼬드기며 저들이 그 무엇을 할듯이 생색을 내고있지만 인민들은 자기들의 삶을 짓밟은 반역무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고질적인 《선거》 《부정행위》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사건들이 련이어 터져나왔다. 《선거》때면 의례히 볼수 있는 현상인데 그 주되는 범인들은 물론 《한나라당》패거리들이다.

최근 《한나라당》소속의 당진군수가 불법적으로 뢰물을 받아먹고 이 당의 제주도지사예비후보의 동생이 《금권선거》행위를 벌리다가 그만에야 덜미를 잡히고말았다. 이로 하여 비난여론이 쏟아져나오자 급해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부정행위에 관계된 인물들을 공천하지 않겠다.》느니 뭐니 하고 수선을 떨었다. 그런가하면 그 무슨 《부정부패척결》과 《깨끗한 정치》에 대해서도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보자는 식으로서 서툰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시정배들이 인민들을 기만우롱하는 정치협잡행위와 모략에 이골이 난자들이라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다. 그들이 지금껏 《부정부패척결》타령을 곧잘 늘어놓았지만 실지 행동은 그와 정반대였다. 이 반역당패거리들이 벌린 부정축재행위의 규모와 수법을 보면 마피아두목들도 혀를 찰 정도이다.

사람들은 말로는 그 무슨 《청렴결백》과 《정직한 사회건설》을 목터지게 부르짖던 《한나라당》패들이 《정치자금》을 차판으로 옮아내여 《차떼기당》이라는 더러운 오명을 쓴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있을것이다. 또 《한나라당》소속의 《국회》의원들과 《실용정부》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개입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쌀소득보전직불금횡령사건》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그 특대형부정부패사건들은 《한나라당》패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더러운 《돈벌레》무리인가를 여지없이 폭로해주었다. 당시 남조선인민들은 똑똑한 정치철학도 없고 시대감각도 무딘 시정배무리가 《검은돈》을 긁어모을 구멍수를 찾는데서는 어떻게 그렇게도 머리를 잘 쓰는지 모르겠다고 야유하였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한나라당》의 그 더러운 악습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의 우두머리인 집권자부터가 투기에 능하고 《검은돈》을 다 긁어모아 《실용정권》의 최고갑부로 되였다. 그가 《대통령》후보로 나섰을 때 이미 그와 관련된 《BBK주가조작사건》, 《부동산거래투기사건》을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사건이 터져나왔다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역도는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 이후에도 자기 집안은 물론 처가편족속들까지 내세워 온갖 권력형부정부패행위를 거리낌없이 저질렀다. 《대통령》이라는자가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이렇게 앞장에서 부정부패행위에 열을 올리는데 그 아래패거리들이 어찌 부정부패행위를 부끄럽다고 마다하겠는가.

지금 부정부패사건에 걸려든 《한나라당》패거리들속에서는 《큰도적은 상층에 있고 우리는 좀도적에 불과하다.》는 볼부은 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으며 언론들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썩은 정치풍토속에서 돋아난 악폐》라고 비웃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경제인련합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0%가 남조선사회의 부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인민을 위한 정치는 고사하고 돈벌이에 환장해 날뛰는 부패하기 짝이 없는 《한나라당》의 정치간상배들이 앞으로 남조선사회에 더 큰 부정적후과를 미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썩은 부위는 제때에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온갖 부정부패로 곪아터져 썩은내를 풍기는 《한나라당》의 역적패당을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단호히 심판하고 정치무대에서 쫓아내는 길만이 남조선사회의 진보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다.

본사기자 김향미

진보세력의 련대움직임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진보세력의 《선거련대》로 반역《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움직임이 고조되는 속에 야당들의 후보단일화가 주목되고있다.

지난 5월 12일 민주당과 민주로동당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단일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범민주세력의 단결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현 〈정권〉을 인민의 이름으로 심판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뿐만아니라 야당세력들과 각계시민단체들의 《선거》에서의 공조를 위한 활동도 적극화되면서 《한나라당》심판세력의 힘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올해초부터 남조선의 진보세력내부에서는 《지방자치제선거》에 대비한 련대련합움직임이 나타났다. 민주당, 민주로동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진보대통합은 더이상 거스를수 없고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라고 주장하면서 《선거》승리를 다짐하고 그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진입하였다. 인천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 지역 진보세력들도 《지방자치제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단일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였다. 《민주통합시민행동》은 민주세력의 대단합을 기치로 내걸고 사회의 모든 진보개혁세력이 련대와 합의를 통한 《선거련대》와 《정치련합》을 실현할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이런 속에 최근 진보정당들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반《한나라당》련대를 실현하여 《한나라당》을 심판할것을 주장하면서 《선거련대》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지난 시기 진보세력의 련대를 꺼려하던 일부 정당들도 반《한나라당》세력의 힘을 합치는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선거련대》에 적극적인 립장을 보이고있다. 진보세력의 이러한 《선거련대》움직임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지역들에서 《한나라당》후보들을 타승하고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보수패당의 집권위기를 심화시키고 나아가서 그들의 재집권음모를 짓부실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바빠난것은 보수집권세력이다. 지금 이자들은 불리하게 번져가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어떻게 하나 이번 《선거》를 파쑈독재권력을 강화하며 재집권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계기로 만들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반역패당은 케케묵은 《색갈론》을 들고나와 진보세력들을 《친북좌파》로, 《체제전복세력》으로 몰면서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미국소고기수입재개책동을 반대하여 일어났던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시위를 《반성하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로 모독하면서 으르렁거린것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한편 보수패당은 진보세력사이에 리간을 조성하고 그들을 분렬약화시키려고 온갖 비렬한 음모들도 꾸미고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괴뢰들이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신북풍》을 몰아오면서 모략적인 《북련루설》을 반대배격해나서는 각계 진보세력들을 《빨갱이》니 뭐니 하는 악담으로 마구 헐뜯고있는 사실이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모든 진보세력들이 보수세력의 탄압책동과 모략소동에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로 굳게 뭉쳐 련대련합의 힘으로 모략과 음모, 파쑈폭압과 동족대결에 이골이 난 반역도배들을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대로 남조선에서 민주세력들은 반독재민주화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민심에 역행하는 독재자들에게 파멸의 철추를 안기였다.

지금 보수당국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각계 진보세력들의 《선거》련대를 파탄시키고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려고 꾀하고있지만 인민들은 반역도당의 음모를 용납치 않을것이며 이번 《지방자치제선거》를 《실용정권》에 대한 력사의 준엄한 심판장으로 만들고야말것이다.

장윤남

《보안법》을 집권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둔 남조선에서 살벌한 폭압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을 해치기 위한 《보안법위반사건》들이 매일같이 조작되고 그들에 대한 강제수색과 체포소동이 무차별적으로 감행되고있다.

파쑈광들은 당국의 사대매국행위와 반역정책, 북남대결소동을 폭로단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한 농민이 통일을 념원하는 시를 썼다고 하여 《보안법》을 위반하고 《북을 고무, 찬양》했다고 떠들며 박해하였으며 민족정기구현회 전 회장이 《실용》정치의 부당성을 까밝히는 글을 인터네트에 올렸다고 하여 그를 《보안법》에 걸어 강제련행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최근 파쑈광들은 21세기대학생련합 전 의장을 구속한데 이어 그 산하 광주전남지역대학생련합, 대구경북지역대학생련합 전 의장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그들이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보안법》을 위반했다는것이 그 리유이다. 얼마전 남조선검찰당국은 민주로동당 안산시당 부위원장이 이전에 범민련 경인련합성원으로 있으면서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떠들며 그를 소환조사하는 망동도 부리였다. 파쑈당국의 마수에 걸려 《미래》가극단 대표, 로원청년회 회장, 《한총련》투쟁본부장이였던 전남대학교 학생 김현웅, 《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성원 민소현도 쇠고랑을 찼다. 이것은 남조선집권세력이 파쑈적인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진보세력을 탄압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요즘 남조선언론들에 《위기에 빠진 〈정권〉이 〈보안법〉카드를 꺼내다》, 《〈선거〉앞두고 〈보안법〉사건 속속 터져》, 《〈보안법〉이 더욱 활개치며 기승을 부린다》 등의 제목으로 된 폭로기사들이 련일 실리고있는것도 이런 험악한 실태를 반영한것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보안법》을 무기로 진보세력탄압에 열을 올리는 목적은 《실용정권》에 반기를 드는 모든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함으로써 반《정부》투쟁의 무풍지대에서 《선거》를 무난히 치르어보자는데 있다.

력대로 남조선의 독재자들치고 《보안법》을 집권유지의 수단으로 써먹지 않은자가 없다. 통치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중세기적인 악법인 《보안법》에 명줄을 걸고 진보세력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것은 파쑈광들이 늘 써먹던 상투적수법이다.

극악한 반역통치로 민심의 버림을 받고있는 《실용》독재자들도 바로 그러한 수법에 매달리고있다. 보수패당이 올해초부터 그 무슨 《보안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를 내온다, 《보안법위반사건》들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 하면서 부산을 피운것도 저들의 더러운 흉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데서 출발한것이였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파쑈적망동은 민심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뿐이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다 죽어가는 〈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민심의 목소리를 죽이고 〈선거〉정국을 돌파해보려는것은 이미 철이 지난 류행가》일뿐이라고 조소하면서 괴뢰당국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탄압이 강화되면 될수록 더욱 무자비하고 가혹해질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옳은 말이다. 《실용》독재자들이 《보안법》에 매달려 위기를 모면하고 집권안보를 실현해보려 하지만 그것은 물에 빠진자가 지푸래기라도 잡아보려고 허둥대는것과 같은 쓸데없는짓에 지나지 않는다.

본사기자 박철준

강화되는 역적패당심판투쟁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보수집권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반《정부》투쟁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얼마전 민주로총과 시민사회단체, 《MBC》방송로조원 600여명을 포함한 1만여명의 각계층 인민들은 서울에서 당국의 언론장악책동을 규탄하는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토론자들은 당국의 죄악으로 얼룩진 행적을 폭로하면서 자기들의 투쟁은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현 집권세력을 고발하고 심판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당국의 언론장악책동을 반대하는 《MBC》방송로조원들의 투쟁에 지지성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결의와 당국의 파쑈폭압에 끝까지 맞서 싸울 의지가 표명되였다.

이날 《2010 대학생정치참여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도 당국이 《반값등록금》약속을 지키지 않고있다고 규탄하면서 민심을 우롱하는 당국자들을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단호히 심판할것을 호소하였다.

민주로총 전라북도본부는 대회를 열고 당국이 《전교조》, 공무원로조성원들에 대한 징계와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로동자들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할것을 요구하면서 《가진자 1%만을 위하는 〈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단체는 《지난 120년동안 세계로동자들이 이룩하고 1980년대 로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룩된 력사가 불과 반역〈정권〉 2년만에 실종, 박탈》되였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단체는 당국의 《반민주, 반로동, 반서민정책》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결사의 각오를 표시하였다.

얼마전 범민련 남측본부도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 반민족적정체를 날날이 폭로하면서 강력한 련대투쟁을 선언하였다.

이날 민주로총도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보수집권세력에게 반드시 참패를 안길것을 각계에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모든 조합원이 계급투표에 참가하자!》고 웨치며 반역《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로동자들

호전광의 분별없는 대결전쟁선동

남조선통치배들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대결과 전쟁을 악랄하게 선동하고있다.

며칠전 그 무슨 《원로회의》라는데 나타난 리명박은 저들이 지금껏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바깥의 위협에만 치중》했다느니, 지난 10년간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이것은 《주적개념》을 완전히 되살리라는 지령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괴뢰당국은 우리를 《주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실무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문제의 망발은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반공화국적대감을 극도로 고취하면서 대결과 긴장격화를 정책화하고 북침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호전적기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괴뢰들의 《주적개념》이라는것은 동족인 우리를 절대로 화합할수 없는 《주되는 적》으로 대한다고 정책적으로 규정한것이다. 그의 정식부활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 도전으로 된다.

《주적개념》은 6.15통일시대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대결전쟁론인것으로 하여 온 겨레의 규탄배격과 심판을 받고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리명박이 이런것을 다시금 주어들고 대결을 선동하는것은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상태에 못박아놓고 우리와 기어이 맞서며 전쟁도발도 서슴지 않으려는 반민족적망동으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리명박역도가 이번에 《발밑의 위협을 간과》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었는데 그것은 가소로운 궤변이다. 보수패당은 집권초기부터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폭언하고 《군사적우세》를 떠들며 무력증강과 전쟁도발책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왔다. 괴뢰군부가 미국과 함께 북침을 가상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최대규모로 벌리고 그 무슨 《도발》과 《위협》을 떠들며 괴뢰군의 작전체계를 선제공격형으로 전환시키고있는것이 과연 《발밑의 위협을 간과》한자들의 행동인가. 그 무슨 《간과》니 뭐니 하는것은 가만히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도발》을 걸어왔다는 수작으로서 그야말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그것이 《주적개념》부활소동을 정당화하고 졸개들에게 대결광기를 불어넣기 위한 유치한 선동일뿐 다른것이 아니라는것은 누구나 짐작할수 있다.

역도가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떠벌인것도 대결미치광이의 낯뜨거운 잡소리이다. 괴뢰군부가 6년전에 《국방백서》에서 《주적》표기를 《주되는 위협》으로 바꾸었다지만 《주적》과 《주되는 위협》의 의미는 본질상 차이가 없다. 보수패당은 한번도 우리를 동족으로, 화해와 단합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극도의 적대감과 악의만을 품고 줄곧 대결에로 줄달음쳤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실용정권》의 《대북정책》 그 자체가 반민족적인 《주적》론에 기초한 대결전쟁정책이 아닌가. 오늘 북남관계가 전면파탄상태에 이른것은 동족의 선의를 그렇듯 랭정히 뿌리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 해치려고 미쳐날뛴 그들의 반통일적망동의 필연적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느니 뭐니 한것은 보수패당이 현 사태에 머무르지 않고 끝끝내 전쟁도발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사실상 지금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괴뢰들의 모든 움직임은 외세와 야합하여 전면전쟁을 도발할것을 작정한자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매우 무분별한것이다.

괴뢰들의 《주적개념》부활소동이 몰아올 후과는 실로 위험천만하다.

우리에 대한 《주적개념》의 공식명문화는 곧 북침전쟁도발기도의 명문화이다. 괴뢰들이 함선침몰사건을 악용하여 북침전쟁도발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 이상 우리는 이미 선언한대로 도발자들의 《대응》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무자비한 행동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가게 될것이다.

앞으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을 걸어온 괴뢰들이 져야 한다.

전종호

비렬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당장 중지하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담화 발표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리명박역적패당의 무모한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여 5월 2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지금 리명박역적패당이 외세와 함께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응징》과 《보복》, 그 무슨 《제재》를 떠들어대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에는 극히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리명박역도패당이 해내외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강행한 함선침몰사건《조사결과》발표놀음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엄중한 도발로, 로골적인 선전포고로 락인하고 강력히 단죄규탄한다고 담화는 밝혔다.

담화는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천안》호침몰사건을 철두철미 괴뢰패당이 조작한 날강도적인 《모략극》으로 단죄하고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피력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발표놀음은 강성대국을 향해 비약하는 공화국의 위력에 질겁한 괴뢰패당이 미일상전과 공모결탁하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와 존엄을 헐뜯고 《제재》책동에 계속 매달리며 공화국을 모해, 압살하기 위해 조작한 《모략극》이라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은 함선침몰사건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흉악한 목적에 악용하면서 핵전쟁의 길로 미친듯이 질주한다면 반드시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온 겨레가 리명박패당을 하루빨리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하나로 굳게 뭉쳐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쑈독재를 일삼는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견결히 지켜나가야 한다.

재중조선인들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재난을 들씌우려고 미쳐날뛰는 역적패당을 하루빨리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만약 리명박역적패당이 무모하게 날뛰며 감히 공화국에 도발한다면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원쑤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짓뭉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한나라당》의 죄행을 폭로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당》 의원이 5월 24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함선침몰사건을 정치적목적추구에 리용하려는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그는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와 관련하여 작성한 내부문건을 공개하였다.

이 문건에는 《천안》호침몰사건을 《안보문제》로 규정짓고 대대적으로 선전할데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여권이 함선침몰사건을 이번 《선거》에 악용하려한 물질적증거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망동을 규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5월 25일 서울의 괴뢰통일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역적패당이 반공화국대결조치를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리명박이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그 무슨 《대국민담화》에서 《대응》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단체는 지금 대부분의 민중들은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사결과》에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강경대응》을 떠드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였다.

《이런 서투른 조사결과발표와 대응조치들이 만약 안보정국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정부의 정략때문이라면 그것은 응당 민중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수 없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단체는 남북관계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전면부정하고 대화와 소통대신 군사적긴장을 고조시켜온 리명박《정부》의 대결정책이 오늘의 이 엄중한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사태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리명박《정부》가 대결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과 행동을 중지하고 무모한 《대응》조치들을 철회하며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한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는데 나설것을 단체는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모략사건의 장본인처벌을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모략행위와 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천안》호침몰사건은 조선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 미국과 남조선의 자작극

국제사회계가 주장

《천안》호침몰사건을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의 모략극, 날조극으로 락인단죄하는 국제사회계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남조선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까밝혔다.

그것은 우선 《조사》기일이 대단히 오래 걸렸고 첨단설비로 장비되였다고 하는 《천안》호가 어뢰를 제때에 포착하지 못한것이 기본의문점으로 제기되고있다.

남조선의 《조사결과》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일부 나라들이 맞장구를 치고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에 대해 회의적인 립장을 취하고있다. 특히 《조사의 신빙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증거물》을 조선의 《련루설》을 강조하기 위해 꾸며낸 조작으로 보고있다.

조선의 잠수정이 《어뢰공격》을 하였다고 하는데 초계함이 《잠수정침투》를 탐지하지 못하였다는것은 론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는 성명에서 리명박역적패당이 후안무치한 거짓과 날조로 일관된 《천안》호침몰사건《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공화국에 대한 《응징》과 《보복》을 줴치고있을뿐아니라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까지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조선함선침몰과 아무런 련관도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함선침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련계되여있다고 하는것은 조선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이며 미국과 남조선의 날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검열단파견을 제기한것은 천백번 정당하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검열단을 받아들이는것을 거절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증거물》들은 마치 박물관에서 주어온 물건짝과 같은것이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은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함선침몰사건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억지로 련관시키고 무엄하게 도발해나선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조종에 따른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을 부추겨 《전시작전지휘권》이양을 연기할뿐아니라 날로 강성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책동을 더욱 강화하려고 날뛰고있다.

나는 위대한 주체의 나라, 존엄높은 선군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방해하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비렬하고 서툰 모략행위와 무분별한 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주체로 일심단결되고 선군으로 자위를 실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로씨야과학원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현대조선연구쎈터 연구계획책임자는 이따르—따쓰통신과의 회견에서 남조선함선이 조선잠수정에 의해 침몰되였다는 사실자체는 실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남조선함선침몰사건에 대한 그 어떤 정확한 결론을 내리려면 아직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보다 강력한 선전깜빠니야를 벌리면서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기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각본에 따른 행동으로서 미국도 이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러한 행동의 목적은 명백히 정치적성격을 띠는바 조선을 고립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재를 실시하며 조선을 전복하자는데 있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사회당, 사회주의인민당, 주체사상연구소를 비롯한 정당,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리명박역적패당을 두둔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걸고들고있으며 내외여론을 오도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은 남조선함선침몰이야말로 철두철미 미국의 비호, 조장에 의한 자작극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만능의 보검인 선군의 위력으로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하리라고 확신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보복》에는 보다 강도높은 보복으로, 《응징》에는 무차별적인 징벌로 맞대응한다는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철의 의지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받아들이라

체스꼬단체들 요구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와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가 남조선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일것을 요구하여 5월 2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리명박역적패당이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우기 위하여 내외여론을 오도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검열단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할것이라는 립장을 천명하고 그와 관련한 통지문을 보낸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역적패당은 《천안》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되였다는 사실이 내외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에 의하여 최종확인되였다느니, 이 문제는 정전협정체계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검열단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회답통지문을 보냈다.

특히 괴뢰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는 공개석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검열단파견립장을 헐뜯다 못해 《응분의 대가》와 《단호한 행동》에 대하여 줴쳐대면서 극악한 대결광신자, 군부깡패로서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지금까지 조선서해해상문제를 북남군부가 직접 다루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한때 미행정부도 조선서해문제는 저들이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공식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이 그 존재자체가 이미 사멸된 《군사정전위원회》를 빗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이는것을 거부해나선것은 저들의 날조극, 모략극의 정체가 드러날수 있는 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불가침에 관한 북남기본합의서의 제2장 10조와 부속합의서의 제2장 8조의 요구에 비추어보아도 남조선당국은 마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더구나 남조선당국의 말대로 《조사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유럽지역 기구인사 담화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여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몽 쥬브가 5월 2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함선침몰원인을 조선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으로 날조하고 그것을 구실로 대조선도발책동을 감행해나선것과 관련한 단호하고 원칙적인 립장을 밝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함선침몰원인을 조선측에 있다고 발표한 조건에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정당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제시한 《물증》이라는것이 정확치 않다는것을 명백히 말해준다.

지금 남조선의 여론은 남조선당국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정국을 뒤집고 저들의 심각한 통치위기, 집권위기를 모면하려는데로부터 이번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였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함선침몰원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억지로 련관시키고 무엄하게 도발해나선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조종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을 부추겨 《전시작전지휘권》이양을 연기할뿐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로골화하려고 날뛰고있다.

나는 미국의 추동밑에 남조선당국이 분별없이 도발에 나서는 경우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가지 강경조치들을 취할것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며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주체로 일심단결되고 선군으로 자위를 실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을

여러 나라 출판물이 보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을 5월 27일과 28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남조선의 대결정책에 따르는 대응조치 선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남조선의 대결정책에 대한 대답으로 북남협력교류와 관련한 모든 군사적보장조치들을 전면철회할것이라고 통고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중대통고문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최근 움직임을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한 전면파기행위로 락인하고 당면하여 동, 서해지구 군통신련락소의 페쇄와 개성공업지구 등과 관련한 륙로통행의 전면차단검토에 착수할것이라고 밝혔다.

통고문은 조선서해해상에서 우발적충돌방지를 위하여 체결하였던 쌍방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해상초단파무선대화기사용을 일체 중단하며 긴급정황처리를 위하여 개통하였던 통신선로는 즉시 단절할것이라고 밝혔다.

통고문은 조선서해 조선측해상분계선에 대한 침범행위에 대하여서는 즉시적인 물리적타격이 가해질것이며 조선의 령해, 령공, 령토를 통한 남조선의 함선, 비행기 및 기타 기동수단들의 통과를 전면 불허할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 《신화매일전신》, 《베이징일보》,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공동홈페지 《조선—백두산》, 까타르의 알 자제라 위성TV방송,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 미국의 CNN방송, UPI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BBC방송, 일본의 교도통신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발표》 등의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미국은 사태를 어디로 끌고가려 하는가

미국이 남조선피뢰함선침몰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반공화국소동을 벌리고있다. 미당국자들이 앞장서서 련일 《천안》호침몰을 무작정 우리의 《도발행위》로 몰아붙이며 《응당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느니, 《후과가 초래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듣기에도 역스러운 망발들을 줴치고있다. 미국회에서는 《북조선규탄결의안》을 채택한다, 《대북금융제재법안》을 추진한다 어쩐다 하고 복닥소동을 피우고있으며 지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통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란스럽게 떠들고있다.

남조선피뢰군부의 《군사적보복》야망을 미군부가 부채질하고있다.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관은 미국은 《확고하고 단호히 대처할것을 약속한다.》고 줴쳐댔다. 미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최신예《F—22》전투기들을 일본 오끼나와에 전진배치하였다. 피뢰함선침몰해역에서 미국의 핵잠수함동원하의 련합대잠훈련실시, 공해상에서 우리의 선박에 대한 검색, 차단, 운항중지문제를 일정에 올리고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포위환을 좁히고 고립압살하려는 적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전례없는 엄중성과 위험성을 띠고 감행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피뢰함선침몰과 관련한 《조사결과》라는것은 철두철미 남조선피뢰들이 미국의 승인, 비호, 조장하에 꾸며낸 모략극, 날조극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떠들면서도 처음부터 우리를 《혐의자》로 락인하고 그에 맞게 사건조사를 유도하였다. 남조선에서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미국방성, 미국무성, 미중앙정보국에서는 그 무슨 《대책회의》가 뻔질나게 벌어졌으며 거기서는 《북조선의 소행》으로 앞질러 결론짓고 비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의하였다. 미국이 《북조선외에는 다른 용의자가 없다.》느니, 《함선침몰원인이 십중팔구 북조선의 어뢰공격에 있다.》느니 하면서 우리를 《혐의자》로 락인한것은 괴뢰들의 사건조사방향을 시사한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이번 사건을 우리와 결부시키는데로 몰아가라는 암시였다.

《천안》호가 침몰된 후 한동안은 그 원인이 함선의 연유탕크나 탄약고, 기관실 등에서 일어난 자체의 《내부폭발》일수도 있고 함선자체의 로후로인한 《자연피로파괴》나 해저암초와의 충돌이 침몰원인일지도 모른다고 하던 괴뢰들의 초기론조들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어뢰공격》설이 기정사실화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함선의 생존자들도 침묵을 지키고있는 약 100m높이의 물기둥을 사건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섬에서 그것도 캄캄한 밤에 목격하였다는 백령도감시병의 《진술》, 녹쓴 어뢰잔해에 생생하게 마지크로 씌여졌다는 《1번》이라는 《글자》,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건져냈다는 가스타빈, 함선의 굴뚝부위에 묻혀있다는 《화약성분》들은 모략군들의 서투른 《솜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과학적근거가 없는 조사결과》라는 보도가 쏟아져나오는데도 《조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우겨댔다.

남조선괴뢰들이 《조사결과》라는것을 날조하여 발표하자 기다렸다는듯이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함부로 걸고들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통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분주탕을 피운것도 미국이다. 한 외신은 남조선당국의 《조사결과》발표에 미국이 《신속히 반응》하는것은 이미 《사전교감이 있었기때문》이라고 까밝히였다.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다치면 터질듯한 초긴장상태에 있다. 북남관계는 전면차단되고 정세는 각일각 전쟁국면에로 치닫고있다. 동족사이에 갈등과 불화를 조성하고 그것을 기화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이번 괴뢰함선침몰사건도 제2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괴뢰들로 하여금 우리를 《혐의자》로 모는 모략극을 기어이 연출하도록 극구 추동하였다.

대조선제재를 국제화하여 우리를 질식시키고 남조선을 저들의 대아시아전략실현의 하수인으로 써먹자는것이 또한 미국의 속심이다.

미국무성은 함선침몰사건이 《전시작전권전환》문제와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떠들지만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영구주둔을 합리화하기 위한 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은 뻔하다.

미국은 이번 모략사건의 《덕분》으로 말썽많던 후텐마미군기지문제도 손쉽게 해결하였다. 최근 일본은 조선반도정세를 턱대고 후텐마미군비행장의 오끼나와현내 이설립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북조선의 어뢰공격》이라고 결론이 내려진 남조선 《천안》호침몰사건이 일본이나 남조선을 미국에 의존하는데로 떠밀었다, 일본정부를 《미국의 궤도에 다시 올려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미국에 리익을 가져다주었다.》라는 견해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한것은 일리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번 괴뢰함선침몰사건은 새 전쟁도발과 대조선고립압살을 노린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비렬하고 추악한 모략극외 다른것이 아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위기일발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비핵화과정이 파탄의 운명에 처하였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에게 있다.

우리는 공명정대한 평화협정체결제안을 한사코 외면거부하던 미국이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남조선괴뢰들과 함선침몰이라는 충격적인 모략극을 날조하고 사태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데 대하여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며 만단의 동원태세를 갖추고있다. 미국이 서투른 모략극을 구실로 기어이 제2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침략자들에게는 비참한 결과가 차례지게 될것이다.

리 현 도

어린이들의 국제적명절

오늘은 국제아동절 60돐이 되는 날이다. 국제아동절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어린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행복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어린이들의 국제적명절이다. 일명 6.1절이라고도 한다.

지금으로부터 61년전인 1949년 11월 당시 쏘련의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녀성련맹 제2차리사회 회의에서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부터 전세계 진보적녀성들과 인민들은 해마다 국제아동절을 어린이들에게 질병과 고통, 무지와 몽매, 가난과 굶주림만을 가져다주는 제국주의의 반동적정책과 자본주의의 온갖 악폐를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여 어린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 기념하여오고있다. 지난 기간 국제사회는 어린이보육교양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어린이들의 처지는 한심한 상태에 놓여있다. 해마다 세계적으로 900만명이상의 5살미만 어린이들이 각종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있으며 120만명의 어린이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전락되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령아동은 1억명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린이보육교양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보고 여기에 보다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로부터 오늘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훌륭히 키우는 사업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있다.

국제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는 한편 소년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온갖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벌어지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어린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어린이사망률이 낮아지고 어린이보육과 건강증진사업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국제아동절 60돐에 즈음하여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을 더 잘 키우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으며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문제를 국가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여러가지 시책들을 실시하고있다. 이번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국제아동절 60돐은 세계적으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미국과 서방의 제재책동을 배격

이란원자력기구 위원장이 5월 19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미국과 서방이 이란을 반대하는 새로운 제재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채택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은 적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조소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위협은 여지없이 배척당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과의 협조밑에 평화적핵개발을 더욱 다그쳐나갈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본사기자

미국의 새로운 무인기개발책동

미국이 무력현대화의 한 고리로 새로운 무인기개발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5월 26일 미공군은 캘리포니아주의 서부지역 앞바다에서 신형초음속무인기의 비행시험을 감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학적발전관을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과학적발전관을 관철집행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있다.

얼마전 중국의 《인민일보》는 《당건설을 강화하여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어떻게 하면 당건설을 강화하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할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를 위한 4가지 요구를 제시하였다. 신문은 사상리론건설은 당의 기본건설로서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과학적발전관으로 광범한 당원들과 간부들을 무장시켜야 과학적리론으로 주관적세계와 객관적세계를 개조하는 전당의 능력을 높일수 있다, 각급 지도부와 지도간부들이 과학적발전관의 관철집행을 추동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시키는 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그래야 각급 지도부를 과학적발전관을 관철집행하는 확고한 령도집단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광범한 간부들을 과학적발전관을 관철집행하는 중요한 골간으로 키울수 있다, 당의 기층조직은 당의 전반사업과 전투력의 기초이다, 오직 기층을 틀어쥐고 기초사업을 잘해야 기층당조직을 과학적발전관을 관철집행하는 튼튼한 전투적보루로 건설할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에서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관철집행하기 위한 사업은 각 부문과 지역들에서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5월 1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문헌연구실창립 30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문헌연구실 웹싸이트가 개설되였다. 문헌연구실의 한 책임일군은 웹싸이트개설은 모택동사상과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더 잘 학습하고 과학적발전관을 심도있게 관철집행하자는데 있다, 또한 이것은 전당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으로 무장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로세대혁명가들의 사상과 생애, 업적, 풍모 등을 리해하며 당력사를 더 잘 알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지난 4월말 중국공산당의 한 지도간부는 청해성 옥수현에서 지진재해구제에 동원된 부대들을 위문하면서 각급 지도부가 과학적발전관의 요구에 따라 임무집행과 부대건설강화사이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해구제임무를 완수하는것을 통하여 부대의 전면적건설, 특히 기층건설을 추동하고 부대의 다양한 군사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지난 4월 중국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주임은 현재 청해성 옥수지진재해구제사업이 긴장하게 진행되고있다, 식품안전사업을 잘하는것은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집행하고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구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에 대한 고도의 책임적인 정신을 가지고 식품안전사업의 중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며 식품의 질과 관련한 영상을 뚜렷이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중국의 사천성에서도 과학적발전관을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사천성은 전국적인 3개의 학습, 실천활동시범성들중의 하나이라고 한다.

얼마전 중국공산당의 한 지도간부는 사천성에서 제3차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학습, 실천하는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학습, 실천하는 활동좌담회를 조직하고 사업을 더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얼마전 절강성 주둔부대의 신병사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공산당의 한 일군은 신병사업을 잘하는것을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학습, 실천하는 활동의 하나로 보고 신병사업을 새로운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얼마전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한 정치일군은 무장경찰부대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각급 부대들이 형세가 변화발전하는 새로운 특징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히 파악하며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견지하고 《인민무장경찰법》에 의거하여 부대의 현대화건설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실들은 중국에서 과학적발전관을 심도있게 관철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채일출

규탄배격받는 이스라엘

아랍국가련맹 부총서기가 5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만행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를 공습하여 15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에게 부상을 입힌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지역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위험한 행위로 락인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유태복고주의정권이 결코 평화를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 *

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의 한 고위성원이 5월 26일 기자회견에서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군용기들이 가자지대 상공에 날아들어 미싸일공격을 가함으로써 15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에게 부상을 입힌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범죄행위, 테로행위로 락인단죄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의지를 꺾어보려는 이스라엘의 무모한 행위에 단호히 맞서나갈 립장을 천명하였다.

* *

팔레스티나민족당국 경제, 무역 및 산업상이 5월 26일 라지오방송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위협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였다.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이 강점된 팔레스티나령토에서 생산된 이스라엘상품들에 대한 배척운동을 개시한데 대해 이스라엘당국이 그 무슨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적대적인 행위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상품배척운동을 벌리는것은 팔레스티나의 합법적권리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상품배척운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때까지 계속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팔레스티나어린이들의 반이스라엘초불시위

ㄱ-01095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